2021년 11월 24일 (10.20) 수요일

한과정보

코로나 19 현황

누적	신규	사망
613,950	58	15,849

기준환율 : ₩ 1,186.50 송금시 : ₩ 1,174.90 팔때 : Q 7.56 살때: Q 7.90

대사관 : 2382-4051~55 이메일 : embcor.gt@mofa.go.kr 대사관긴급전화 : 3368-9333 한인회 : 2445-6461

얀센 접종자 부스터 샷 '아스트라제네카'나 '스프트니크 V'

12월부터 부스터 샷(3차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보건부가 이미 접종받은 백신에 따른 부스터 샷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과테말라에서 1차와 2차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백신을 이용해 부스터 샷을 접종받게 되며, 아직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받지 못한 스프트니크 V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해 접종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에서 1차례만 접종받는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6페이지에서 계속〉

미소 Z.10
숯불구이 전문
한식당
최상급 갈비살, 엘에이 갈비, 안창살, 돼지 갈비
쭈꾸미 볶음, 매운 족발, 해물짬뽕밥 등...
주소 : 3ra Ave. 12-38, Edificio Paseo Plaza, MISO, Zona 10
MONTANO'S AVIA 앞
4150-3788 4111-7717
화요일 휴무

AISA
전기종 미싱 판매.수리 전문
(전사프린터 제작.수리 전문)
(휴징프레스 판매 · 수리)
탑빠제작 전문
3a. ave A 3-72 sec. A-5 san cristobal, Bodega 1 Z.8 mixco
Tel. 3082-7035

eclipse & mariposa
1F Restaurante
BAR
노래방
2F Karaoke (오픈예정)
36 av 0-37 Zona 7 Col. Toledo tel.4152-6600, 5903-1891

그린 . 해피 마트

전품목 20%
10월 28~12월말까지
SALE

10월 28일자
한국냉동 콘테이너
10월 25일자
미국 냉동 콘테이너



드디어 1년에 한번 시행되는
연말 세일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쏘나 7.쏘나 9.쏘나 14 전매장 실시)



1년에 한번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선한 물건 구매하세요





뒤이어 연말 선물관련 콘테이너가
줄줄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연말은 그린마트와 함께)

일부 품목 제외

그린마트	해피마트	해피마트 2호점
5525-1200 2433-9651 1calle 32-51 Z.7 col. Toledo	4025-2266, 5893-8565 2334-7344, 2362-3475 Bulevar Liberacion 4-11 Z.9 Local #1 Plaza Asadis	12calle 3-40 Z.14 (비발디 아파트 바로 옆) 4025-2266,5525-1200 2221-7004

샤인코리아

한국 슈퍼 마켓

교민과 함께하며 신선한 제품과 저렴한 금액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오뚜기 HITEJINRO paldo

10월 24일
미국 냉동
컨테이너 입하



이천 햅쌀 입하
로봇 청소기, 전기포트

10월 10일 한국냉장입하

잘챙긴 한끼 뉴케어
(어린이 영양간식 딸기맛, 당뇨식단 무설탕,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
라면 및 각종 음료 다량 입하
어린이 학습용 칠판, 유리로된 진열장

한국배, 켐벨 포도 판매중



연말 선물용 한국 과일 주문 받습니다
(필요한 기간동안 냉장 보관해 드립니다).
연말선물 카나스타 주문 받습니다.

Tel : 2441-6325 / 2439-7176 / 주소 : 2 Calle 34-15 Zona 7
영업시간 : 오전 8시30분 ~ 오후 7시 / 시내 전지역 배달 / 신용카드 사 용 가능

샤인 빵집 한국 베이커리

예약 전화: 2441-6325/2439-7176/5701-4323
한국 제과 제빵 종류는 뭐~든지 예약 전화 주세요.



고구마, 녹차, 모카, 과일생크림,
초코케익, 롤케익
아침 10시부터 갓구은 빵이 나옵니다.





복사기 임대

잉크빠이스

- 문의전화 -
2439-3692
4234-0057

젯트 여행사

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관광청 승인 여행사

INGUAT

~ 가족과 함께 떠나는 행복한 연말여행 ~

* 국내선 TAG 항공 깐꾼직항 취항
  (CANCUNAll Inclusive 특가여행)
  - 4성급호텔 (3박4일) : $580
  - 5성급호텔 (3박4일) : $650
  - 여행기간 : 12월23일까지
  - 10월 30일까지 구매.

* 로와땅 온두라스(ROATAN All Inclusive)
  - 12/23 ~ 12/26 ($720)
  - 12/26 ~ 12/29 ($880)
  - 12/29 ~ 1/2 ($1,050)



* Rotan 골프장 리조트 및 (Las Veranda) 주방시설 완벽 콘도 리조트. 예약가능.
* 코스타리카. 벨리즈. 파나마. 쿠바. 과테 전지역 연중 패키지 관광.

※ 2차백신 접종완료자 과테입국시 COVID-19 TEST 없이 입국가능 ※

13calle. 3-40 Local 41. 2do. Nivel. Edificio Atlantis Zona 10
E-mail : taeshim62@hotmail.com jetexpressgua@yahoo.com
Tel : (502) 2385-4646 직통전화 : (502) 2383-4324 HP : (502) 5867-5867

Jet Express Travel Agency & Tours

SKY x IVY
겨울특강



IVY league 선생님한테 배우는 SAT 특강

-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



실제 SAT 기출 풀이

실제 SAT 문제로
유형파악
+
지문 이해력↑

초등 문법부터 AP까지

초등 영어/수학부터
STAT, CALCULUS 등
각종 AP, TOEFL 까지

최고의 강사 강의

여름방학 특강 이후
SAT 평균 150점 상승
+
1500점 이상 다수

Kakao ID : SKYAcademy | skyacademy.global@gmail.com

과테말라 / 중남미 주요뉴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스푸트니 V 백신을 이용해 추가로 두 차례 접종을 진행한다고 보건부는 밝혔다.

미국의 경우 얀센접종자를 위한 부스터 샷으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과테말라에서는 아직 교차접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부스터 샷 접종시기는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며, 얀센 백신은 접종 후 2개월이 지나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eslie Samayoa 보건부 차관은 "부스터 샷에 사용될 백신은 이미 접종받은 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의 백신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접종받은 백신에 따라 접종완료 후 2개월에서 6개월이나 지난 접종자는 접종증명서를 지참 후 백신접종센터를 방문하면 12월부터 부스터 샷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우선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꼬마 보건부 장관은 백신의 수급문제로 인해 부스터 샷을 맞기 전 보건부 홈페이지에 3차 백신 접종자로 등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11월 29일부터 부스터 샷(3차 접종)을 위한 보건부 홈페이지 접수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Prensa Libre

보건부, "백신만으로 감염 막지 못 해... 방역조치 지켜야" 경고

프란시스코 꼬마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에 대한 과테말라 국민들의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언제든지 재확산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며 코로나가 안정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는 최근 몇 주간의 상황은 다시 감염병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이 다시 확산되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길 바라지 않고 있다"고 밝힌 꼬마 장관은 "예방접종을 통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늘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들며,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이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백신


한국 꽃집 - Con Flor
플라워샵 위치 : Z.10-HOLIDAY INN 호텔 근처 TEL.4069-5410, 3042-6968
Conflor Guatemala/web:www.conflorguatefler.com
기억하고 싶은 모든 순간을 ConFlor와 함께 하세요!!
감사와 축하의 자리에, 향기로운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 드려요.
한국 포장 재료와, 자연미가 돋보이는 플라워 스타일 ~ ConFlor !!
개업 및 결혼식을 빛내 줄 새로운 개념의 세련된 축하 화환 및 모든 화환!
화장품도 문의해 주세요 (MISSHA 엠플, MISSHA AQUA CREAM 등)
1ra. Ave. 12-77 Zona 10 Torre 2 de Santa Clara #7

과테 골

- 도시락 전문 -

과테 시내 배달개시 Q300 이상

낮 12시부터 오후6시까지 모든메뉴배달



♣ 보쌈, 족발
♣ 김밥, 김치볶음밥
♣ 오리로스. 훈제
♣ 생삽겹
♣ 양념통닭
♣ 후라이드통닭

각종 찌개 ♣
김치 판매 ♣
다양한 점심메뉴 ♣
영양탕(매주 화요일) ♣
닭,오리 백숙(오전예약) ♣
출장 뷔폐/돌잔치/회식 ♣

활어회 다량 입하

이사칠칠-이육삼팔 / 이칠칠오, 오삼영사-사일사오
46 calle 6-87 Z.12 Col.Montemaria 3 / 월~토 12시부터 영업

3Ave. 12-28 Z.9 / 주차장 완비
Waze로 OPTICA CAMALEON을 검색!
명가식당 정면으로 70m에 위치
월~토 (9:00~5:00) 일 (10:00~5:00)
※ 매주 화요일 쉽니다 ※

ÓPTICA CAMALEÓN

한인안경원

3761-9349 2361-4731
※ 근무시간 외 예약가능 ※

누진다초점안경 구매시 맞춤돋보기안경 무료증정

*무료증정 돋보기의 도수가 많이 높은 경우 소정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책, 컴퓨터를 하나로!!(기능성 돋보기 안경)
* 적응이 쉽고, 티도 잘 나지 않는 노안안경 (무표시 이중초점안경)



* 선글라스 렌즈교체(도수,색상, 편광 등등 개인맞춤)
* 안경과 선글라스를 하나로!! (다양한 컬러의 변색렌즈)
* 빛 번짐,눈부심 감소안경 (주야간 드라이브 안경)
* 장시간 디지털기기 사용의 최적솔루션 (EYEZEN)



*어린이 근시 완화 렌즈
*흘러내리지 않는 토마토 어린이 안경테

원스톱 서비스 / 한국인에게 편하고 잘 맞는 다양한 안경테 보유
다양한 렌즈보유 / 정확한 안경제작을 위한 정밀초점측정 장비 사용

The nail 손.발 케어 및 내성발톱 관리 전문

8calle 28-00 Z.11 Plaza Las Majadas local #F / ☎ 삼공이구-삼육팔사

속 눈썹 연장 / 펌
네일아트 연장 / 아트
패디큐어 / 각질케어
내성발톱 / 무좀발톱 관리
무좀 관련 제품 판매
네일·눈썹 영양제 판매

◆ 발톱 교정 관리 ◆



◆ 발톱 무좀 관리 ◆



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지 못 하기 때문에 생활 속 방역조치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을 맞아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주 안띠구아 시에서 열린 꽃 축제처럼 사람들이 몰리며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4차 유행이 다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 장관은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축제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교회가 발표한 내년도 사순절과 부활절 행사는 정부가 발표하는 지역별 코로나 신호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연하게 감염병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코로나 병상 점유율도 하락한 상태다.

Jorge Meneses 보건부 차관은 감염병 발생 초기에는 코로나 환자 전용 병상이 840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779개로 늘어나며 지난 3차 유행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1년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는 29,202명으로 이 중 14,048명이 회복되었으며, 7,267명이 사망했다.

국립병원의 코로나 병상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지난 9월로 병상 점유율 100%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28%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코로나 임시병원의 올 해 1월 초 위중 환자 병상 점유율도 72%에서 현재는 21%까지 낮아진 상태이며, 중증 환자의 병상점유율도 23%에서 2%로 줄어들었다.

11월에 발생한 위중증 환자 중 백신 1차 접종자는 25명, 2차 접종자는 23명으로 확인되었다.

1차 접종 후 감염되어 위중증 환자로 발견한 경우 중 5명은 사망하고 16명은 퇴원한 상태며, 2차 백신 접종후 감염된 환자 중 위중증 환자 위중한 상태였던 12명 중 8명은 사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당뇨와 고혈압 등의 기저 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Meneses 보건부 차관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과테말라에도 4차 유행이 다시 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증 환자용 병상 128개와 위중증 환자용 병상 91개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지만,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강한 유행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테말라는 감염병이 폭증하던 지난 8월, 하루 18,000여건의 검사를 시행해 양성률 37%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최근 검사수 대비 양성률은 7% 낮아진 상태다. 다만 최근 하루 검사수는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다.

Edwin Montufar 보건부 제 1차관은 현재 297,400회 분의 코로나 검사키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추가로 170만회 분의 코로나 검사키트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rensa Libre

RESTAURANTE HAN GUK GWAN

고기 전문 식당

한 국 관





▶ "냉면 전문식당 그 외 다양한 메뉴 / 연중무휴
▶ 넉넉한 주차공간 보유 (대리운전 콜 서비스)

이사삼구-오구이칠, 사육이영-이칠오구 / 2a. calle 33-14 Z.7 calz. mateo flo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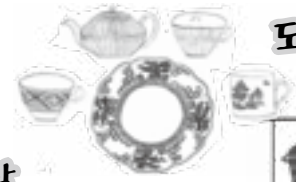
체 리 쉬

☎ 5000-7503 한국관 옆 (구)다솜

여성 가죽 수제화 정리
(2켤레 Q500)



신발-유아, 어린이 한국 신발



도자기 그릇



이불(침구류)



선물세트



여성복

꽃 꽃다발
꽃바구니
웨딩부케
축하.근조 화환
생화 케익
(당일배송)



매주 화요일 쉽니다

가로등에 꽁꽁 묶인 멕시코 도둑들

부패한 멕시코 공권력을 대신해 '자경단'이 나섰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 엘 우니베르살은 자경단에게 잡혀 혼쭐이 난 도둑들이 잇따라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멕시코 북동부 타마울리파스의 한 거리에서 가로등에 묶인 남녀가 목격됐다. 이들은 가로등을 등지고 선 채로 테이프에 몸이 꽁꽁 묶여 어쩔 줄을 몰랐다.

겨우 풀려난 남녀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얼굴은 영화 속 악당 '조커'처럼 페인트칠이 돼 있었고, 이마에는 '나는 소매치기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반 나체 상태인 남자 배에는 해당 문구가 더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노인 지갑을 훔치다 자경단에 붙잡힌 소매치기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도둑질이 제일 쉬웠다"고 실토했다. 이어 "노인에게 용서를 구한다.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다.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라며 용서를 구했다.

타마울리파스 지역 자경단이 소매치기를 잡아 망신을 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주일 전에도 버스에서 활개를 치던 소매치기 일당을 잡아 혼쭐을 내줬다. 일당 4명의 웃옷을 벗기고 얼굴에 페인트칠을 한 뒤, 손을 테이프로 이어 묶어 거리를 걷게 했다.

자경단은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민이 조직한 자발적 결사체를 말한다. 범죄 카르텔과 부패 경찰 유착 속에 치안 불안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자, 평범한 멕시코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었다. 열 살 남짓 취학 연령 어린이도 자경단에 가입해 총기 훈련을 받는 실정이다. 멕시코 중서부 미초아칸주의 한 마을에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자경단도 있다. 남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카르텔의 납치 및 처형이 잇따르자, 참다못한 여성 주민들이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자경단을 또 다른 범죄조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7월 '엘 마체테'라는 이름의 치아파스주 자경단이 집 12채를 불태우고 21명을 납치한 사례는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범죄조직 가담자를 색출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게 엘 마체테의 명목이었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단죄'가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자경단이라 불리는 단체와 그들의 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자경단을 불법 단체로 규정했다.

멕시코 정부는 2006~2012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요 갱단을 와해시켰다. 그러나 공권력을 등에 업은 카르텔의 횡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자경단이 불법을 무릅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다. 과거 미초아칸주의 한 자경단원은 AP통신에 "공권력이 카르텔에 맞서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며 움직이지 않는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신문

샬롬여행사
(SHALOM TOUR)
32 Ave 1-28 Z.7 Utatlan(농원 2층 위치)
2439-7650, 2439-7706, 5990-7197
shalomlim@hotmail.com, shalomlimgua@hanmail.net

한국가는 아에로 멕시코 운항일
과테 출발 : 수, 금요일
서울 출발 : 금, 일요일
엘에이 경유 매일 운항

MEGA MART

로데오

한국택배전문 2433
통합배달전문 9015



11월 18일 한국 냉동 신상 대량입하

11월 21일 한국 일반 신상 대량입하

맛깔나는 모둠떡은 기본



싱싱한 생선류
맛있는 신상냉동 및
다양한 먹거리
종즐동

미친 연말 수입으로
입을 즐겁게

서둘러 오세요





떡보의하루



로테오 한국택배 마감 안내

12월1일부터 실는 택배는 가격 인상 있습니다

12월 06일 일반 1대 + 12월 20일 냉동 1대

믿고 맡겨주세요 택배는 로테오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배와 컨테이너가
모자라는 물류난을 겪고있지만
로테오택배는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소중한 택배들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로테오마켓
본점 2433-9015
2호점 2221-5364
3호점 2367-0137

업택업제

아람정육점	4514-0802
마장동	3258-8320
밀베이커리	4545-4504
순풍식당	2508-5635
향이	4576-5786
진미식당	5550-1317
김사랑	5379-5833
본가	4676-7100

통합 배달 전문



한국 택배 전문

사 설

한마디 사죄도 없이 떠난 '국민 학살자' 전두환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이 23일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 반성과 사죄도 없었다.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한 것이 우리의 정서이자 관습이지만,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총칼로 학살한 내란 수괴의 죽음 앞에서 어떤 애도의 감정도 가질 수 없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으로 1980년 '민주화의 봄'을 짓밟았고, 광주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압살했다.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살상했다.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권력을 장악한 뒤에도 무자비한 폭압정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해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다. 또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정경유착을 일삼았다.

그는 생전에 여러차례 참회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사망하기 직전까지 자신의 죄과에 대해 뻔뻔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단 한번 미안한 기색조차 보인 적이 없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내란과 5·18 책임자로 법정에 섰을 때도 '광주 항쟁'을 '좌파 세력의 준동'이라고,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선 "폭동"이라 강변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한달 전 세상을 떠난 노태우씨와도 비교된다. 그래도 노씨는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유족을 통해서나마 사과를 했다.

전두환은 노태우씨와 달리 추징금도 25년째 내지 않았다. 검찰이 1249억원을 강제 집행했으나 여전히 체납액이 956억원에 이른다. 전두환의 가족들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염치없게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부인 이순자씨는 2017년 자서전에서 전두환의 5·18 책임에 대해 "정략적인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2019년 재판 출석을 앞두고는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궤변을 늘어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전두환은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고 떠났다. 국가장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거나 애도를 표명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진정성 있는 사죄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문과 조화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국민 학살자'에게 어울리는 논평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전두환으로부터 한마디 사죄도 받지 못한 5·18 영령들과 유족들이다.

최근 일부에서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되돌리려는 퇴행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1987년 시민항쟁 이후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전두환 사망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 여론과 강성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 눈치보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겁한 침묵이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자신의 지지층만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수 정당의 참모습이다.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국민의힘은 수구 정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노태우씨와 전두환의 연이은 사망으로 군사독재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저물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온전히 넘어간 셈이다. 그러나 5월 광주의 진상 규명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1980년 5월20일 밤 10시30분 광주역에서 계엄군의 첫 발포,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 첫 집단발포를 누가 명령했는지 밝히고, 생사도 확인되지 못한 행방불명자 신원을 찾아내고,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과 수습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5·18 영령들 앞에, 박종철·이한열 열사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역사의 법정에 공소시효는 없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CAFE TAN

4739-9391, 5635-3156

CAFE TAN cafe_tangt



과테말라 최상급 커피주문!!!

공장 바이어, 고향 방문 선물로 최고!!
주문하면, 필요한 날짜에
한국인이 직접 볶아 드립니다.

할라파, 게이샤 워시드 .. 90점(과테말라 전체 5위)
후티아파, 모카 워시드 .. 86점(희귀종)
산타로사, 파카마라 네츄럴 .. 90점(산타로사 1위)
산타로사, 옐로우 버번 허니 .. 87점
우에우에떼낭고, 게이샤 워시드 .. 88점
우에우에떼낭고, 카투라 워시드 .. 88점
아카테낭고, 버번 허니 .. 87점
아카테낭고, 아나카페 14(신 품종) 워시드 .. 86점
안티구아, 카투라 워시드 .. 86점
안티구아, 버번 네츄럴
코반, 카투아이 .. 86점
치키물라, 옐로우버번 .. 84점



PedidosYa 배달가능

CAFE TAN : Bulevar Principal C.C. San Cristobal Mix Local 24

명가 名家



"숯불구이 개시"



한방오리백숙, 돼지국밥,
쟁반국수, 콩국수, 치즈까스,
스시롤, 활어회, 복사시미
숙주와 차돌, 복찜, 아구찜,
염소탕, 삼합, 숯불돼지갈비
선지해장국, 곱창구이,
양념 돼지 껍데기

"꼬치 구이" 개시

예약받아요

- 현지인 회식 -
삼겹살 무한리필 Q100
다양한 메뉴/점심 메뉴
회사 도시락 배달/ 일반배달

연중무휴 / 평일 9:00, 일요일 6:30-7:30 / 이이일구-구육육육, 이이삼사-육팔육삼, 오칠영삼-일칠삼사

라 이 프

매일 먹으면 좋은 '슈퍼 과일' 1위는?



과일은 건강에 좋다. 다양한 과일들을 챙겨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번 여러 과일들을 사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영양소를 고루 제공해주는 최고의 과일은 무엇일까? 미국 영양전문 매체 잇디스낫댓은 라즈베리를 꼽았다.

-이유는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다.

라즈베리 1컵(123g)에는 무려 8g의 식유섬유가 포함돼 있다. 한국인 기준으로 성인남성은 30g, 성인여성은 20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라즈베리를 1컵을 섭취할 경우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이미 충족시키는 셈이된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 중 하나다. 장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과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라즈베리는 풍부한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일일권장량 절반정도의 비타민 C를 비롯해 망간, 비타민 K를 포함, 마그네슘, 칼슐, 아연까지 포함한 미네랄의 보고다. 비타민의 경우에는 E와 A마저 포함하고 있다.

라즈베리는 항산화물질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항산화물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경우 노화가 늦춰지는 효과가 난다. 뿐만아니라, 암, 당뇨, 심장질환 등의 예방에도 좋다.

물론 라즈베리 외에도 블루베리와 딸기 등도 비슷한 종류의 과일이다. 그러나 이들 과일과 라즈베리가 주는 건강상의 혜택은 엄연히 다르다. 블루베리와 딸기 등도 풍부한 비타민 C 등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라즈베리에 비해서는 같은 양에 포함돼 있는 식이섬유의 양이 절반도 채 안되는 수준까지 떨어진다.

잇디스낫댓은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먹는 것이 물론 가장 좋은 과일 섭취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건강에 가장 좋은 '슈퍼과일'을 꼽으라면 라즈베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높은 식이섬유 함유율은 다른 과일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치로 확인된 '코로나블루 · 확찐자' 비만 및 정신질환 진료 증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 수업이 늘고 고용난이 심화되면서 아동 비만과 청년 정신질환 진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 수업이 늘고 고용난이 심화되면서 아동 비만과 청년 정신질환 진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어스작업

♣ BIAS (랍빠감, 니트 / 우븐) 다대 및 바이어스 요꼬 커팅
♣ 스파게티 작업
♣ 랍빠 및 애리가다, 굿찌가다 후다 등 "패턴포머 전문제작"
♣ 각종 ATTACHIMENT

랍빠전문

니트 및 우븐 핀탁랍빠

품질 보증, 납기 엄수

담당 : 박상봉 5526-0630

Fabrica empresarial montaña
km 18.5 carretera san juan sac
Aldea naranjito Z.6 de mixco
A-41-68 bodega no.2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5년간 비만 진료자는 88.1% 증가했다. 특히 '9세 이하'는 232.5%, '10대'는 145.7%로, 아동·청소년 연령층의 비만 진료율이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대비 '9세 이하' 아동의 비만 진료율은 45.3%, '10대' 청소년의 비만 진료율은 29.6%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청소년의 건강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은 20대 청년층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전체 연령에서 24.2% 증가한 데 반면 20대는 69.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53.4%)에 비해 여성(84.0%)의 정신질환 진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2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24.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살 생각 비율'도 17.52%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년 사망원인통계'도 20대 청년 자살률이 19.2명에서 21.7명으로 12.8% 가량 급증했다고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사태가 대중들의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부산동아대병원 김동민 교수 연구팀이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2,288명 중 30.7%는 우울증 증세를, 22.6%는 불안 증세를 보였다. 연구팀은 "수면 문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수면 검사와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융합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면증 발생 위험이 1.58배 높으며, 불안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감소할 가능성이 8.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스(Philips)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면 동향'에서 한국인은 10명 중 4명만이 수면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해, 전 세계(5.5명)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 시간 또한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평일 수면 시간은 6.9시간, 주말 수면 시간은 7.8시간인 반면, 한국인은 각각 6.7시간, 7.4시간으로 평균에 못 미쳤다.

MEDIKOR
CLÍNICAS MÉDICAS

Dra. Ana Kim (김아나 박사)
Dr. Jorge Baján (호르헤 바잔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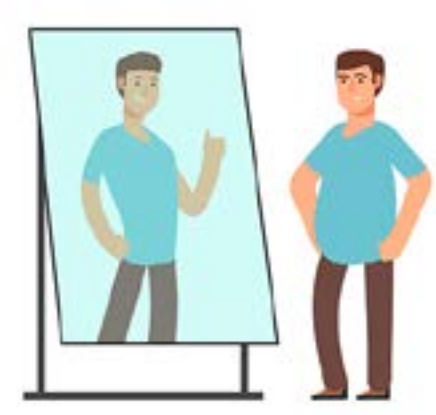
진료과목

- 소아과 (Pediatria)
- 산부인과 (Ginecología y Obstetricia)
- 일반외과 (Medicina General)



10 calle 2-45 Zona 14, Clínicas médicas de las Américas, Clínica 704
2293-9649 citas@medikorgt.com

"날씬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 '마른 비만' 벗어나는 생활 습관은?



체지방 비율이 높고 근육량이 적은 것을 마른 비만이라고 부른다. 몸집이 작거나 마른 것이 건강의 지표라고 흔히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체질량 지수(BMI)를 가지고 있더라도 체지방 비율이 높고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콜레스테롤, 고혈압과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 마른 비만의 원인은?

모든 사람의 몸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더 높은 체지방률과 적은 근육량을 가질 수 있다. 운동과 식습관, 나이, 호르몬 수치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신체 크기에 기여할 수 있다.

운동을 할 때 몸은 근육의 형성을 자극하는 아나볼릭 호르몬을 분비한다. 운동은 또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방을 저장하기 쉽게 만드는 호르몬 변화를 피하는 것을 돕는다. 정제된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신체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들은 근육을 유지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 손실과 체지방 증가 위험이 가장 높을 수 있다. 나이와 관련된 근육 손실은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며, 이는 종종 체지방 증가를 동반한다.

호르몬 불균형은 체지방 증가와 체지방 저장량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지방질량이 증가하고 복강 내 내장지방 저장량이 증가할 수 있다.

운동을 자주 하지 않거나 불균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당뇨, 뇌졸중,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환 위험이 높을 수 있다. 마른 체형이지만, 신진대사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은 '대사 비만, 정상 체중'이라고 말한다. 이때 4가지 주요 위험 요인은 높은 혈압과 혈당 수치, 과도한 허리 지방, 높은 중성 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이 있다.

2015년 Nutrition and Diabetes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진대사적으로 비만인 65세 이상의 정상 체중인 사람은 위의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

당분이 높은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은 상승하고 당을 지방과 근육 세포로 순환시키기 위해 인슐린을 생산한다. 만성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몸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특히 배 주위에 증가하는 체지방과 관련이 있다.

몸은 근육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경우 근육을 만드는 신체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 마른 비만에서 벗어나는 생활 습관은?

생활 습관은 신체 구성과 전반적인 건강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식이요법, 운동과 함께 질 나쁜 수면과 과도한 스트레스 또한 체지방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해야 하는 것

1.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을 위한 시간을 만든다.
2. 하루에 최소 7시간 수면을 취한다.
3. 운동을 주간 일상의 일부로 만든다.
4.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정제된 설탕 섭취를 최소화한다.
5. 장시간 앉아 있지 않고, 자주 움직인다.

하지 말아야 할 것

1. 체중 감량을 위해 속성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2. 하루에 7시간보다 적게 자지 않는다.
3. 한 번에 또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는다.
4. 취침 시간 전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다.
5. 영양 섭취를 위해 패스트푸드에 의존하지 않는다.

마른 비만 체질을 변화시키는 특정한 운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자신이 즐기는 운동을 찾고 이를 주간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1. 일주일에 적어도 150~300분 정도의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
2. 일주일에 적어도 2번 근력 운동을 한다.
3.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테니스, 춤, 하이킹)

"기상하면 몸이 뻣뻣해서 못 움직이겠어요"…이때도 '관절염' 의심해야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의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 움직이기 불편하다면? 그러다가도 몸을 계속 움직이면 뻣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뻣한 증상이 점차 호전된다면? 조조 강직(Morning stiffness)일 수 있다.

조조 강직은 류마티스관절염, 섬유근육통, 강직성척추염 등 염증성 관절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나 조조 강직이 한 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류마티스관절염을 의심해야 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이란?

체내 면역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자가항체가 자신의 관절 조직이나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질환이다.

관절을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에 걸리면 손가락, 발가락, 손목 등의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인 활막에 염증이 발생해 활막이 두꺼워진다. 또,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뼈가 손상돼 관절의 기능이 손상되고 모양이 변형된다. 이외에도 폐, 신장, 심장 등의 장기 침범, 골다공증, 혈관염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약 2/3는 피로감, 식욕 부진, 전신 쇠약감, 모호한 근골격계 증상을 먼저 호소하다가 이후에 활막염이 발생한다. 아울러, 여러 관절에 통증과 강직이 발생하고, 피부가 부어오르는 종창 등이 수 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나타난다.

전 세계 인구의 1%가 류마티스관절염을 앓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발병에는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 모두가 주요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전적 요인

류마티스관절염은 한 가지 유전자가 아닌 여러 가지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자 질환이다. 류마티스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가족력이 존재한다는 보고도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형제는 일반인보다 류마티스관절염 발병률이 약 2~4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발병 일치율이 30%, 이란성 쌍둥이에서는 발병 일치율이 5%로 보고된다.

환경적 요인

류마티스관절염의 주요한 환경인자 중 한 가지는 흡연이다. 흡연에 의해 펩티딜아르기닌 탈이미노화 효소가 활성화돼 아교질을 시트룰린화한다. 이로 인해 시트룰린을 항원으로 인지하는 항시트룰린단백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발병의 첫 단계라는 가설이 제시된 것. 즉, 관절에서 시트룰린에 대한 면역반응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류마티스관절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관절 통증이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류마티스내과 등에 방문해 관절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 엑스레스 촬영 등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다.



정 치 · 경 제

이재명, 中企 '4대 비전' 발표 "공정 안전망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재명표 기업 프렌들리'(기업 친화) 정책은 정부와 기업 간 '유착'이 아니라 '공정'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창의·혁신, 공정 없이 성립 못해"

이재명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및 상생협력 촉진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이다.

이 후보는 "대공황 시기의 뉴딜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 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원천 방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 등 플랫폼 시장 공정성 확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자발적 상생기업 우대 제도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조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 향상 △제조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화폐 발행' 대폭 확대…"노동과 기업 존중, 공존 증명한다"

특히 이 후보는 창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개' 목표를 내걸었다. 이어 클라우드 펀드·기술 플랫폼 구축, '데카콘 기업' 육성 위한 메가 테크펀드 조성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실패도 자산"이라며 실패사례연구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전통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공정한 임대차 계약 모형 확산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 제도개선 △노란우산 공제 및 복지 사업 확대 등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이어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배달플랫폼 전국 확대 도입과 상권 공공 라이더 활동 지원 등을 언급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자영업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조합·상권 등 협업화 지원 확대 △영세 소공인 대상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대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노동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며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김종인에 "尹 선거 진두지휘 요청" 황당하다는 김종인 "의중 뭔지 모르겠다"

권성동,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 문제에 대해선 변화 가능성이 없다 일축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합류 문제를 두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대선후보측은 24일 회동을 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김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에서 20여분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님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역할을 해달라는 후보의 말씀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권 사무총장은 갈등의 핵심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 문제에 대해선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최고위에서 (김병준 인선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번복할 방법은 없다"며 "그런 상태에서 (김 전 위원장님께) 총괄위원장으로 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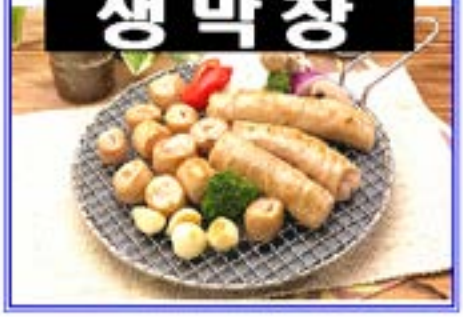
향이 숯불갈비

배달가능 [로데오 통합배달]



과테에서 맛보는 신선한

생막창



*** 점심특선 ***

양푼이 비빔밥
돌솥 비빔밥, 알밥,
얼큰 뚝배기 만두,
뼈다귀 해장국
쫄면, 비빔국수
황태 콩나물 해장국

*** 예약 메뉴 ***

굴보쌈(2시간 전)
닭도리탕(1시간전)

*** 특별 메뉴 ***

소꼬리찜(보통,매운)
갈비찜(보통,매운)

Calz.Mateo Flores 33-40 Z.7 / 이이삼삼-칠이일영, 사칠사영-사칠일오, 사오칠육-오칠팔육
"결혼피로연, 돌잔치, 회식, 각종모임 등 단체환영" 안전한 콜서비스 대리운전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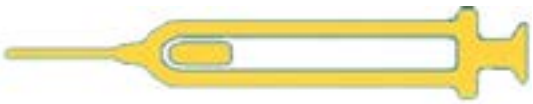
박 상 민
healthcare clinic

가정의학과 박 상 민

Healthcare Clinic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2021 4가 독감 예방접종 시작



돌아온 독감 시즌, 독감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와 독감 구분이 어렵습니다
독감 백신접종이 필요합니다
미국 CDC도 독감 접종과 코로나19 접종 두가지 예방접종 모두를 권장합니다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faq.html)

※ 메세지, 카톡, 왓츠앱으로 예약 바랍니다.

▶전화 : 2439-8225, 4004-6267 ▶ 카드결제가능 ▶Waze/Google map/Uber : '박상민 클리닉' 검색

권 사무총장의 설명대로라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거부 이유인 '김병준 인선'에 대한 변동 없이 그저 합류 간청만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찾아뵙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황당함을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2분쯤 사무실을 떠나면서 기자들의 '합류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고민을 안 한다는데 왜 계속 물어보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 사무총장이 전달한 윤 후보의 진두지휘 요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난 그 의중이 뭔지 모른다"고 말하며 어이없는 듯 웃었다.

현재 윤석열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올 것으로 알려졌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인선 문제를 두고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거절한 상태다.

선대위 구성에 차질이 생기고, 후보와 김 전 위원장간 사이에 갈등이 해소될 국면이 보이지 않자 윤 후보측 권 사무총장이 이날 직접 김 전 위원장을 방문해 마음을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갈등의 핵심인 김병준 위원장 문제 등에 재고 없이 요청만 한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이 마음을 돌리지는 미지수다.

권 사무총장은 '추후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방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홍준표 "전두환 조문 안 간다"

홍준표 "조문 가려했지만 반대 의견 多..고인 명복은 빌 것"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 여부를 청년들에게 물었다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타 의견을 압도하자 조문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홍 의원은 24일 자신이 개설한 플랫폼인 '청년의꿈'에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 의견을 받아 들이겠다"면서도 "그러나 고인의 명복은 빌어야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전날 청년의꿈 내 '홍문청답'(홍준표의 질문에 청년이 답하다) 게시판에 '조문'이라는 제목의 질문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해당 글에서 "전 전 대통령은 저의 제2 고향인 합천 옆동네 분"이라며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조문을 가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떻느냐"고 질문했다.

홍 의원의 질문에 대다수 청년 지지자들은 조문을 강력히 만류하고 나섰다.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 청년 지지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조문을 취소해 달라. 청년들이 부탁드린다" "조문을 가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정치인으로서 악수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홍 의원은 '전두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제 두번째 고향이 합천인데, 전 전 대통령은 제 옆동네 분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 의원은 "1986년 청주지검 초임검사 때 (전 전 대통령 동생인) 전경환 새마을 사무총장이 '청와대 파견검사를 해주겠다'며 찾아오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거절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때 거절했기 때문에 1988년 11월, 5공 비리 사건 중 노량진수산시장 강탈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빚 진 것이 없었기에 전 전 대통령의 친형 전기환씨와 관련된 사건에 손을 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김건희 끝까지 안나타날 것.. 말투와 단어 너무 위험"

"리스크 관리…김씨, 마이크 잡으면 폭탄 터질수도"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끝까지 (공개 석상에) 안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씨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를 접해본 사람들이 김씨 말투나 사용하는 어휘, 구사하는 단어가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건 아닌가'라는 사회자 김어준씨 질문에 "그것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씨가 보이고 있는 모습들 자체가 좋은 모습이 아니고,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어디서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원래 기자셨으니까 취재를 해보신 것 같다'는 김씨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다.

김 의원은 "김씨를 앞에 내세워서 가져올 수 있는 피해보다는 오히려 등장시키지 않아서 안게 되는 감점 요인이 더 작다"며 "이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김씨를 전면에) 안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씨 행보가 공개되더라도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거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불가피할 경우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든지 한 뒤에 사진 한컷과 현장에서 한 몇 마디 이야기 정도를 사후에 공개하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항상 같이 다니지 않나. 다정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후보 부부와) 더욱더 선명한 대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지난 22일 TV조선이 주최한 포럼에서 프롬프터(자막 노출기)가 재생되지 않아 발표 무대 위에서 약 2분간 침묵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에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저녁 8시까지 배달주문 가능

중국집





밥 류▶▶▶
볶음밥
짜장밥
짬뽕밥
잡채밥
야끼밥
잡탕밥
고추밥
중화비빔밥
마파두부밥
삼선볶음밥
유산슬밥
고기덮밥



요리류▶▶▶
탕수육
칠리탕수육
깐풍기·육
라조기·육
양장피
팔보채
유산슬
잡 탕
누룽지탕
칠리새우
깐풍새우
깐쇼새우
고추잡채
중국집잡채
짬뽕홍합탕

면 류▶▶▶
짜장면
간짜장
불짜장
쟁반짜장
삼선짜장
삼선간짜장
삼선쟁반짜장
유니짜장
고추짜장
짬뽕
불짬뽕
삼선짬뽕
차돌박이짬뽕
우동
야끼우동
삼선우동
울면
기스면
콩국수





인스타그램 junggukjip

전화 2212-5639 / 2439-3508 36ave. 1-59 zona 7 colonia toledo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후보의 민낯과 본질,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연내 합당을 위한 최종안은 다음달 초중반까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조금 더 활력있게 만들어 나가는 촉매제, 계기로 삼자는 데에 (민주당과) 크게 공감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 통합 논의의 방향을 잡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尹 처가회사 개발부담금 '0원' 국토부·양평군, 논란일자 뒤늦게 '1.8억 내라'"

"부담금 0원 논란되자 1억7800만원.. 입장 바뀐 양평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가 각각 대표이사·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개발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이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 공흥지구 주변 아파트들과는 달리 ESI&D가 시행했던 아파트는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었는데, 관련 사실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부담금 부과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직원이 양평군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구두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부담금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난 시점인 지난 11월 18일에서야 ESI&D에 대해 개발부담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양평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윤 후보의 처가 회사인 ESI&D가 시행했던 한신휴플러스 아파트는 지난 2016년 11월 17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내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2017년 1월 6억원으로 부담금 규모가 줄었고, 2017년 6월에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다시한번 깎였다. 그런데 관련 사실이 논란이 일자 뒤늦게 국토부가 나서서 양평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고, 양평군은 지난 18일 ESI&D를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통지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관련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로 양평군에 전화를 걸어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며 "특혜 행정, 눈치보기 행정의 배경에 무엇이 존재하나. 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논란이 된 공흥개발은 양평군 공흥

리 일대 2만2411㎡ 면적으로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로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당시 양평군수 김선교)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된 뒤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ESI&D'는 350가구 개발사업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양평군은 이를 2012년 11월 22일 승인했다. 시행과 관련된 논란은 공기를 뒤늦게 사후 연장 승인했다는 점과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책정됐다는 점에다 이날 강 의원이 주장한 '사후 부담금 부과' 등이다.

국민의힘 측은 "양평 아파트와 관련해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절차를 진행했고, 그 업체로부터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당시 양평군도 별도의 전문업체 자문을 받아 개발부담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추가로 고지된 부담금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與, 윤석열 대변인 고발 "폭탄주 회식 허위 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김병민 등 검찰 고발
"'尹, 식사비용 직접 부담' 등 허위 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폭탄주 회식'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병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가 폭탄주 회식 비용을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대신 지불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윤 후보가 자신의 식사비용을 직접 부담했으며, 오히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대변인과 허위 사실을 공표하도록 거짓 정보를 제공한 성명불상 제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식사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음에도 지불한 것처럼 윤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성명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허위 사실의 성명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자는 윤 후보가 식사비용을 지불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공한 자로, 윤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김 대변인으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성명서를 배포하게 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목포의 횟집 주인은 '그날 카운터에 있었는데 윤 후보는 식사비를 직접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윤 후보와 김 대변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식 비용 37만원은 이 전 의장이 대신 지불했고, 윤 후보가 본인 몫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7만7000원은 수행원 3명의 식사비였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로 불공정한 선거가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사실 공표를 상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 줄 것을 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지역 언론에 보도된 영수증 사진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폭탄주 회식 비용을 제3자에게 대신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 후보와 이 전 의장을 고발한 바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 종전선언 추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 종전선언 추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접근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종전선언 문제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길 희망하지만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 (종전선언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영향을 받는지로 연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내년보다 종전선언이 앞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보단 그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라며 "한미 간 조율이 실무적으로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북쪽에 제안하는 과정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과 미국의 태도를 포함한 국내 여건들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그래도 올해가 상대적으로 정세불확실성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있고 한반도 상황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며 "남북이 대화 협력으로 나갈 수 있는 유동적 정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 내년 초가 한반도 평화 정세를 여는 기회의 창이 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 한반도가 평화로 진입하느냐, 긴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쪽으로 가느냐, 그 기로에 우리가 서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설인 내년 설에는 대면이든 화상이든 어떤 형식이든 상봉이 실현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마지막 일분일초 까지, 최후의 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2021’ 취약 계층 지원 사업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민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자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 기다립니다.이웃에 관심과 사랑을 나눕시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제 4차 2021’ 취약계층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1년 11월 3일 ~ 12월 30일
다. 신청기간 : ~ 2021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대상 :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한인 생계위기가구
마. 신청물품 : 기초 생계 유지 물품과 방역용품
바. 신청방법 :
1) 지원 신청서 작성
2) 제출처 : 한인회이메일 haninguate@gmail.com
부회장 5018-1176 / 총무 3034-8518

주 관 사단법인 재 과테말라 한인회
후 원 재외동포재단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2021’ 취약계층 지원사업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직 장	
자택주소			
가족구성원			
현재 상황을 간략 기술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과 제공에 동의합니다.(동의란에 표시)

위의 내용과 틀림이 없으며, 해당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날짜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사단법인 재 과테말라 한인회 귀하

中 인사들, 종전선언 지지 美 대북제재 완화 조건

추궈홍 전 주한대사 "종전선언 큰 의미"
한팡밍 "중국, 종전선언에 건설적 역할"
장충의 "종전 선언 노력 높이 평가"

중국 주요 인사들이 24일 한국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선언과 함께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오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열린 2021 한·중 평화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9월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들에게 6·25전쟁 종전 선언 지지를 촉구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오늘날 긴장이 완화된 한반도 정세를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는 데 유리하게 작용해 지지부진한 협상과 대화 국면을 타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궈홍 전 대사는 "종전 선언은 6·25 전쟁이 종료된 지 이미 70년이 흘렀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인 종전 평화 모드를 실현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일원이자 남북 휴전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중국은 앞으로 상응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궈홍 전 대사는 "만약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미국의 지지와 동의하에 종전 선언을 발표하고 나아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비록 조건적이거나 상징적인 데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당사국들이 최종적으로 모두 종전 선언 체결에 동의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북한의 안보·개발 요구에 부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북한이 더 이상 새로운 핵 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가역적 조항에 따라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고려함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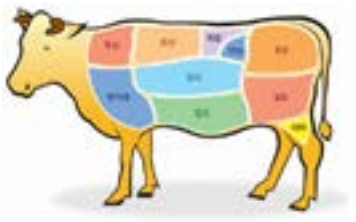
한팡밍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중국 또한 한반도 평화회담 추진과 종전 선언 발표 등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를 계기로 답보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남북 화해 협력 등 문제가 조속히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충의 차하얼학회 부비서장은 "이제 약 6개월 임기를 남겨둔 문재인 정부에 있어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국들 간 종전 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평했다.

장충의 부비서장은 "종전 선언 체결은 현재 정체돼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사실 저는 중국이 당사자로서 종전선언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밀접한 관계자이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서, 그리고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종전 선언에 참여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수출비중 17년만에 15% 돌파 전망 "美 전략적 가치 높아져"

아람 정육점
CARNICERIA ARAM
신선한 고기로 맛있는 식탁을 꾸미세요!

로데오 3호점안
아람정육점
분점 오픈
벌집 삼겹살 개시!!
각종김치, 각종 반찬, 족발
로데오 통합 배달
2호점 : 2221-5364
영업 시간 월~토 / 8:00~7:00
주 일 / 8:00~7:00
전화 : 사오일사- 영팔영이 / 32 AVE. 1-40 Z. 7 UTATLAN 1
위치 : 로데오 2호점 옆 ※ 머릿고기 주문 및 고기 재워 드립니다.

한진 인터내셔날



▶미싱 부속 판매 ▶각종 소모품 판매 ▶ 각종 바늘 판매

▶패턴지, 마카지 판매 ▶패턴포마 아크릴

미싱부속 및 모든 소모품 전 지역 배달

36Ave "A" 3-46 Zona7 El Rodeo 5056-7541 (whatsapp)

E-mail : hanjinter1206@hotmail.com , hanjinguate77@gmail.com

문의전화 : 2434-0743, 2434-1859, 5208-0322, 3036-2370

한국 경제에서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수출 중 대미 수출비중이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이후 미국이 한국의 제1위 해외투자국으로 부상한 것 등이 그 이유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누적 대미 수출은 2012~2016년 대비 17.9%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7.1%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올해 대미 수출이 전년대비 31.0% 증가해 전체 수출 중 미국 비중은 2004년(16.9%) 이후 최고치인 15.0%를 기록한 반면 중국 비중은 2018년 26.8%까지 상승추세를 보인 후 하락해 올해 25.2%로 고점 대비 1.6%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미국의 대중 수입규제에 따른 중국의 전체 수입수요 감소 및 중국 기업의 한국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2019년, 2020년 2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과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로 반도체, 전산기록매체, 이차전지 등의 수출이 최근 2년 새 50% 이상 늘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한국의 누적 대미 해외직접투자는 2013~2016년 대비 75.1% 증가한 반면 대중 해외직접투자는 23.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당시 對미 직접투자가 급증한 것은 미국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요청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대미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잔액 기준으로 2017년 이후 미국은 한국의 제1위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앞으로도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기업은 바이든 행정부의 4대 핵심품목(배터리, 반도체, 핵심광물·소재, 의약품) 공급망 재구축전략에 부응하여 2025년까지 파운드리, 배터리 등에 총 394억달러(약 44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이후 대미 수출·직접투자 증가로 전체 기업의 對미 해외매출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중 해외매출은 2013년을 정점(2502억 달러, 261조원)으로 중국 현지수요 감소 및 경쟁 심화 등으로 1400억 달러 규모로 줄어들면서 2020년 우리 기업의 대미 해외매출이 대중 해외매출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한미 간 교역, 투자 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양국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실질적 애로점 파악을 위한 한미 간 대화 ▲공급망 변화에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비즈니스 인센티브 제공 ▲이 과정에서의 기업의 비즈니스 기밀 정보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 회

황량한 빈소, 싸늘한 정치권

박철언 "아픈 역사 떠나보내고 용서해야"
반기문 "역사의 불행한 일이 다신 일어나선 안 돼"
홍준표 "조문 반대 많아, 명복은 빌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에는 이틀째 황량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 인사들이 조문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강창희 전 국회의장, 박철언 전 장관, 김용갑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역 정치인이 아닌 이들만이 빈소를 찾았다.

24일 오전 9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전 전 대통령 빈소에는 주로 일반인이나 전직 정계 인사들의 모습만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공직(유엔 사무총장)에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자주 뵈었다"며 인연을 전했다. 그는 "역사의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 문상을 왔다"고 말했다. 김 전 민정수석은 기자들을 불러 모아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이니 아무리 국민들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국민들이 조금 포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정무수석을 맡았던 박 전 장관도 뒤이어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전 대통령의 발표되지 않은 공적들이 재임 중에 있었다는 것을 비서관으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어둡고 아픈 역사들은 다 이제 떠나 보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심정"이라고 전 전 대통령의 공적을 강조했다.

전날에 이어 정치권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해 행동과 발언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청와대는 조화를 보내지 않았고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조화가 빈소에 놓였다. 여권은 조문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야권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박대출, 황보승희 등 일부 의원들이 조화를 통해 조의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직접 빈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 4인도 조의를 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유력 주자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조문을 가느냐는 질문에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면서 "그러나 고인의 명복은 빌어야겠다"고 했다.

"5·18은 남침" 극렬 지지자만 넘쳐나는 전두환 빈소

보수 유튜버·지지자들 빈소 앞 머물러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 장례가 이틀째 이뤄지는 가운데 주요 정·재계 인사의 조문 없이 빈소는 다소 조용한 분위기였다. 사흘째에도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던 故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24일 전씨의 유가족들은 전씨가 안치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오전 9시쯤부터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오전 내내 눈에 띄는 인사들의 발길은 없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화가 이날 도착했다.

이날 오전 빈소에 방문한 조문객들은 대부분 전씨가 현직에 있던 시절 함께 했던 측근들이었다. 이틀째부터 대선후보 등 주요 정치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던 노 전 대통령 빈소와 비교하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한 모습이다.

번역 한스
각종 서류 번역
5308-4441

5공화국 마지막 민정수석이었던 김용갑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문을 마치고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나쁜짓을 했다고 해도 국민들이 포용해야 하지 않나"라며 "(전씨의 내란죄)는 훗날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 또한 "(전씨는) 5·18과 관련해서 늘 가슴 아파하고, 희생과 유혈 사태가 있어서 괴로워했다"며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역사들은 다 떠나보내고 국민 모두가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군(軍) 내 사조직 '하나회'에 속했던 오일랑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처장, 이종구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측근들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도 빈소를 찾았다.

조문객 중 현직 국회의원은 전날 방문한 전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유일한 주요 인사였던 반 전 총장은 24일 오전 9시 21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고 유가족을 만나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조문을 마치고 빈소를 나선 반 전 총장은 고인에 대해 "인간 모두가 명암이 있는데 명암이 특히 많은 인물이고 역사가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과가 많은 건 틀림없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용서를 빌고 화해하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는 모습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민주항쟁 희생자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것들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달 초 5·18 국립민주묘지에서 참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희생했는지 경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빈소에는 전씨의 지지자와 보수 유튜버들이 전씨의 행적을 옹호하고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남침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일반인들이 대부분이었다.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신동국씨는 "전두환은 100% 발포 명령자가 아니다"며 "광주시민 학살한 것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을 지켰다. 북한 특수군이 내려온 것을 100% 확신한다. 내가 발포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3남 전재만씨는 이날 늦은 오후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며, 둘째 며느리 박상아씨의 이름은 여전히 전광판에서 빠져있다. 전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5일장을 치른 뒤 오는 27일 발인할 예정이다. 장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 나이로 숨졌다. 그는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대통령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으며 유족 측이 신고했다. 그는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그는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41명 집단감염' 천안 교회

"91% 미접종에 통성기도 빈번" 방역당국 "고령층 돌파감염 증가..추가접종 협력해 달라"

200여 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통성기도 및 모임, 행사 등이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확진자 중 상당수가 백신 미접종자로 알려져 추가감염 위험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브리핑에서 "해당 교회에서는 통성기도를 비롯해 모임, 행사 등도 상당히 빈번했었다고 충남도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체 확진자의 91.4% 정도가 미접종자였다는 보고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손 반장은 "지금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다수가 모여있는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보다 훨씬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취약한 밀집 시설이나 혹은 밀폐된 시설에서의 활동들을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고령층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서



순풍식당

포장 및 배달 합니다.
(로데오 통합 배달)

위치 : 아람정육점, 농원식품 옆
32ave 1-34 Z.7 utatlan 1
5577-7686, 2508-5635

순대국밥전문
순대곱창볶음
순대 떡볶음
야채 불고기
북어 콩나물
소머리 국밥
해물 순두부
오삼 불고기
쭈꾸미 볶음
쭈꾸미 해물탕
돼지머리 주문
머리고기

곱창전골
제육볶음
김치찌개
된장찌개
육 계 장
설 렁 탕
삼 겹 살
만 두 국
술 국
순 대
찐 만 두
홍 어 회

돌파감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 등에 따르면, 천안에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해온 한 마을에서 지난 21일 신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2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241명이 누적 확진됐다. 조사 결과 확진자 중 기초 역학조사가 이뤄진 179명 중 164명(91.6%)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천안시 측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0시부터 24시간 내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9세 안된 어린이 확진자 사망 코로나 발생 후 처음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사망자로 0~9세 어린이 1명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정확한 나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오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20일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어린이 사망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20대는 12명 누적 사망자가 있었어도 10대나 0~9세 사망자는 없었다.

코로나19는 고령층에 위증증과 사망률이 높고 나이가 어릴수록 가볍게 앓고 지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외에서는 어린이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없지는 않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동안 미 전역에서는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코로나19 감염자들이 8300명이나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치료 받았으며 그중에서 172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내 출생 모든 외국인 아동에 신원확인용 등록번호 부여 추진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출생등록제를 도입, 신원확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 등 외국인 아동 가운데 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중인 아동들이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 출입국정보시스템 상 총 3405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 체류 중인데, 이들은 어떠한 신분도 갖지 못한 상태로 학습권, 발달권, 건강권 등 보장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적인 아동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신분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한편 불법체류 통보 의무 유예, 학습권·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아동 학습·발달·건강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 발견시 통보의무를 유예키로 했다. 지금까지 학교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불법체류 사실 발견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했던데서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별 임시식별번호 활용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입소나 초·중등학교 입학, 외국인근로자 대상 백신 접종 등 일부 개별 서비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관별로 임시 번호를 생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처럼 임시 번호를 활용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중·고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 시 학생증·재학증명서로 신원확인 허용이 추진된다. 정부청사 등 국가기관 견학시 소속교 교직원이 동행하는 경우 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한 신원확인 및 출입 등록이 가능해지고, 신원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출입 시에도 학생증·재학증명서 등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학습권 보장도 강화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내에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기회 보장' 내용을 추가하는 등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

빨링 빅토리아
누나식당/하숙
5692-9149
Palin Victoria Sec.67 Casa #1
추어탕, 해물탕
두부 전골
낙지 볶음
골뱅이 무침
삼겹살 무한리필


본가

RESTAURANTE BONGA

숯불구이 양념 돼지갈비 전문



전골류	안주류	육 류	찌개류	국수류
샤브샤브	아구찜	(솥뚜껑구이)	꼬리곰탕	냉 면
부대찌개	두부김치	꽃등심	된장찌개	칼국수
동태전골	춘천닭갈비	안창살	청국장	잔치국수
불고기 전골	오징어볶음	LA 갈비	육개장	콩국수
만두버섯전골	골뱅이무침	삼겹살	어죽탕	
소고기버섯전골	오리주물럭	돼지갈비	순두부찌개	
오삼불고기전골	김치고등어찜	오리주물럭	돼지김치찌개	
어죽탕국수전골	김치돼지갈비찜			
돼지김치두부전골				

김치 · 잔치 음식 · 밑반찬

덮밥류	예약메뉴
제육덮밥	오리백숙
불고기덮밥	닭백숙
오징어덮밥	보쌈, 족발

2445-6050, 3147-7921 / 34 AVE. 1-36 Z. 7 (NAIS 식당 건너편 위치)

본가 옆 나이스 주차장 사용가능 / 로데오 합동 배달서비스 이용 가능

판 매



Z.7 Difiori 아파트 판매 - $135.000, 임대 Q5.000, 72mts, 방3, 화장실2, 주차장2
Z.10 Broken souds 콘도, 주택판매, $375,000, 건평 215mts, 주차장 4, 식모방4,방3,정원
Z.11 Las Gemas 아파트 판매 - $220.000 및 렌트 $850, 154mts,주차장2,창고,방3
Z.11 Parque 11 아파트 판매- $155,000. 105mt2 + 주차장2. 방3
Z.11 아파트 Aralia 판매 - $185.000, 116mts+주차장2+창고. Total 144mts. 방3, 화장실2
Z.11 Las Gemas 아파트 판매 - $210.000, 아파트만 172mts, 주차장2, 방4, 식모방
Z.14 Torre Canada 아파트 판매 - $350,000, 245m2. 방3. 화장실3. 식모방
Z.14 Casa once 아파트 판매 - 방3.주차장2.창고. $280,000
Z.14 Torre condesa 아파트 판매 - $300.000, 161mts, 주차장2,창고,방3,화장실 2.5,다용도실,발코니
Z.14 Bellagio 아파트 판매 - $375.000, 아파트만 237mts, 주차장3, 창고1
Z.15 LIV 아파트 판매 - $320.000. 120mts + 주차장2. 방3. 화장실3. 식모방
Condado Naranjo 아파트 판매 - $135.000, 아파트만 92mts,방3,식모방, 주차장2, 창고
Escuintla Palin km 45, 토지판매, 22,365m^2, Q330,000

한인부동산

토지.아파트.주택.오피스.창고.상가/판매.분양.및 렌트
문의전화 : 5632-9095 (하나 김)
(hanakim3431@gmail.com)

원 제도를 활용해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추진된다.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출생등록제를 도입, 신원확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법 제정 작업도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12월쯤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제정안을 보면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출생 이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및 시·군·구에 출생 사실을 신고·등록하고 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출생등록부에 관리하게 된다. 아동은 부 또는 모의 출생등록 신청에 의해 등록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생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다.

보험금 타내려 10대 아들 흉기로 그은 부모, 실형 "이해 불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녀의 생살을 흉기로 베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가입한 뒤 자해하거나 자녀에 상해를 가하는 수법으로 69회에 걸쳐 7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 부부는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한 후 자해를 하거나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4일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왼쪽 팔에 화상을 입힌 후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아이들에게 튀김을 해주려다 화상을 입게 됐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수법으로 61차례에 걸쳐 6733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A씨 부부는 자녀까지 보험 사기에 이용했다. 지난 2019년 11월 20일 부부는 자녀인 C군(당시 16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뒤 상해를 가했다. B씨가 C군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A씨가 흉기로 정강이 앞부분을 3회가량 벤 것이다.

이들은 "C군이 분리수거를 하려다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해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C군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 1139만 원을 타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고 그 외에도 지속해서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젊은 나이에도 보험금을 속여 뺏기 위해 자녀의 생살을 찌르거나 불에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런 엽기적인 행위 때문에 자녀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을 속여 뺏은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파기돼야 할 정도로 너무 낮거나 높지 않다고 보인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30대 공시생 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7년

30대 친아들을 막대기 등으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

한 진 정 밀
Han Jin Industrial
Tel : 5401-9261
7a calle 26-35 Z.4 de mixco boulevard bosques de san nicolas
◆ 모든 상표 전기종 신품 미싱 판매
◆ 봉제 모든 미싱 부속 및 소모품 판매
◆ 전사 프린터 판매
◇ 전화주시면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중고기계 구매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작동이 안돼
기계실이나 창고에 방치
되어 있는 기계들 처분
하실 분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반 / 밀링 / 용접 / 미싱개조 / 몰드제작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2시간3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등 몸 상태가 나빠진 것을 보고서도 계속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1개 시민단체 "한국산 미사일 UAE 수출 중단해야.. 방산 진흥도 멈추라"

시민사회단체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무기 수출 계획 및 정부의 방산수출 진흥책 중단을 촉구했다.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등 21개 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지역의 분쟁과 불안을 기회로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다는 소식을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UAE 국방부는 최근 4조1370억원 규모의 한국산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천궁Ⅱ) 구매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계약이 성사되면 국내 방위산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군사 갈등이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중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며 "그러나 방위산업이 이익을 얻는 사이 불안이 심화하고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UAE가 사실상 '대리전'인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쟁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온 UAE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연시키고 전쟁범죄에서 한국의 책임이 키우는 것이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K-방산'이란 이름으로 한국산 무기가 분쟁 지역에 수출되는 동안 그들 지역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며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기회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정부의 방위산업 진흥 정책에 단호히 저항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련 요구를 담은 서한을 방위사업청에 전달했다.



코로나에 폭증한 새벽배송 휴식도, 수당도 없었다

정부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첫 근로감독을 통해 51개 사업장에서 178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상당수 업체들이 법으로 보장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연장·휴일 수당이나 휴식시간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및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야간노동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유통업과 물류업,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등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이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강검진, 휴게시설 없다 … 총 178건 적발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17개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총 5,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수면 장애, 뇌심혈관질환 등 야간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5개소에도 4,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선 43개 사업장에서 9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6개소는 야간근로를 마치면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한 후 다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9개소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총 70건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

야간 근로자 40% "사내 건강 보호 조치 없다"

고용부는 야간근로를 하는 1만 여명(응답자 8,0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하루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이 61.5%, 8시간 이상은 38.5%였고, 1일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56.6%, 1시간 미만은 43.3%였다. 이들이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55.8%)가 가장 많았다.

야간근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40.5%에 달했다. 휴식시설에 대해서는 21.1%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도매업(30.0%), 운수·창고업(26.1%)이 제조업(9.8%)보다 '부족하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SITE

C-SITE 과테말라 법인 채용 공고

1. 모집 부문 및 지원 자격

부 서	구인 직급	인원	부 문	지원 자격
영업부	경력 (주임-대리)	1 명	원단 생산/관리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스페인어로 업무 진행 가능자
	경력 (부장급)	1 명	로컬 영업팀장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어, 스페인어로 업무 진행 가능자

2. 전형 방법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3. 제출 서류

• 영문 또는 한글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4. 문의처

• 담당자 : 관리부 주임 한희성 (Alejandro Han)
• e-Mail : alejandro@c-site.co.kr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세계 속의 한국인

민주주의 꽃 피우다

Koreans around the World,
Democracy Blossoms!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absentees and vot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in advance.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Overseas Absentee Report Period
October 10, 2021 – January 08, 2022

**2021.10.10.~
2022.01.08.**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Registration for Overseas Voters
by January 08, 2022

~2022.01.08.까지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 인터넷 이용(ova.nec.go.kr)
  On the Internet(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diplomatic mission or a mobile office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By post or e-mail

투표기간

Voting Period
February 23, 2022 – February 28, 2022

2022.02.23.~02.28.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days may vary by diplomatic mission within the set overseas voting period.

신고·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Report or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website for the registration
ova.nec.go.kr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more information

PLASTIC UNI, S.A.

SINCE 1999

Recycled Content Standard (RCS) 인증

OPP TAPE 2" / 3" CLEAR 테이프
POLY BAG (PE / PP / HDPE) 원단 및 제품 운반용
TAG PIN (투명 / 흑색 / 실크)
- 2021년 6월부터 ZONA FRANCA 법안 통과로 납품기일이 단축되었습니다.

TEL : (502) **육육사사-삼삼영영** [PBX]
FAX : (502) **육육삼삼-팔삼사육**
CEL : (502) **오사이삼-사삼오팔**

plasticuni@pu.com.gt
3ra. Ave. lote 11 Grupo Zeta la Union ca-9
Sur Amatitlan, Guatemala

ALFAPLASTIC, S.A.

의류용 • 산업용 • 상업용 • 농업용






Recycled Content Standard (RCS) 인증





OPP TAPE 2" / 3" CLEAR 테이프

POLY BAG (PE / PP / HDPE) 원단 및 제품 운반용 / 각종 재생제품 생산가능

자동재단기(AUTO-CAM)용 플라스틱 비닐원단 판매 / 규격 : 폭 250cm X 길이 400m

TEL : 6610 - 0400 / 0401

CEL : 4081 - 0552 이상경 이사 (상업, 산업, 농업용)

3132 - 9248 김병찬 차장 (의류, 상업용)

EMAIL : venta@alfaplasticgtm.com (상업, 산업, 농업제품)

alfa2@alfaplasticgtm.com (의류, 원단 등 마낄라 제품)

km 16.5 Carretera a Villa Canales, 2A Calle 1-44

Col.Los Alamos, Zona 6 de San Miguel Petapa, Guatemalal

국 제

미국 미성년 코로나 환자 2주새 32% 증가

전문가들 "어린이들도 백신 접종해야"

미국에서 미성년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2주 사이에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소아과학회(AAP)는 미성년 환자가 지난 4일 집계 10만7000명에서 18일 기준 14만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미성년자는 미국 전체 인구에서 22%를 차지하지만, 미성년 환자는 금주 신규 확진자의 25%에 달했다고 AAP는 밝혔다.

AAP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미성년자의 수가 여전히 극도로 높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5주 연속으로 미성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다만 성인들에 비해 어린이 등 미성년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은 낮다. 연령별로 입원율을 보고하는 주(州)들의 통계를 보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는 전체 연령대의 1.7~4.0%를 차지했다.

AAP에 따르면 최근 6개 주의 어린이 사망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주들의 통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중 어린이의 비율은 0.00~0.25%였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어린이 939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카이저 가족재단 조사 결과 미국 부모 3분의 2는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유보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백신 전문가들인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필 오픗과 제프리 거버 박사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는 매우 아프고 소수는 사망할 수도 있다"며 "아이들이 수막염, 수두, 간염 예방 백신을 맞는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초기 어린이 확진자 비율은 3% 미만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680만명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겨울철을 앞두고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여름에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한 뒤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8월 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유럽의약청, 머크 '먹는 코로나약' 승인할까 판매 허가 심사 돌입

유럽연합(EU) 산하 기구인 유럽의약품청(EMA)이 다국적 제약사 머크(MSD)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의 심사를 시작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MA는 제출된 자료가 의약품의 효능, 안전성 및 품질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면 몇 주 내로 판매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짧은 기간 내 허가 여부를 낼 수 있는 건 이미 라게브리오에 대한 '동반심사'(rolling review)를 통해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EMA는 덧붙였다.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동반심사 단계에서 라게브리오의 비임상 데이터, 의약품의 품질 및 생산 방식에 대한 정보,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 등을 평가했다.

앞서 머크는 지난달 초 라게브리오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MA는 라게브리오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리면 판매 허가를 권고할 것이며, EU 집행위원회(EC)가 며칠 내로 유효한 판매 허가를 승인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라게브리오는 지난 4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머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이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백신 맞으면 590만 원 준다고 해도 거부하는 구글 직원들

구글 직원 수백 명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선언문에 서명을 해 직원을 사무실로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구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4일 경제전문 매체 CNBC 뉴스는 구글 직원 600여 명이 경영진에 백신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구글 직원을 아우르는' 새로운 보건 정책을 만들라고 촉구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성명을 낸 직원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이라면서 현 상황을 원칙의 문제로 접근해 "백신 의무화를 함께 반대하자"고 호소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직원이 100명 이상인 미국 기업에 직원이 1월 4일 까지 완전한 백신 접종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명령한 상태다. 구글은 직원 15만 명에게 내부에 백신 접종 상태를 올리도록 요청했다.

CNBC가 입수한 구글 내부 문서를 보면, 사무실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3일까지 모든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 보안 부사장 크리스 라코우는 10월 말에 보낸 이메일에서 "백신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사무실로 복귀하고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의 확

하나 엔지니어링

문의 오오이팔-이사일삼 / E-mail : hanaeng2004@gmail.com

경원 콤프레샤

중남미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

- 전기 소방 설비 공사 -

- 보일러 설비 배관 -

- 에어 설비 배관 -

- 2층 증설 및 인테리어 -

- 콤퓨레샤 정기 정검 -

- 가장 저렴한 소각 보일러 -

(보일러의 거품을 싹빼겠습니다.)



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직원들이 종교적 신념이나 건강 상태와 같은 이유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마감일이 11월 12일이라고 명시했으며 예외는 사례별로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카바 구글 데이터센터 부사장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자 접종자에게 5,000달러(약 594만 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글 직원 일부는 여전히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 거부 직원들은 회사 최고보건책임자(CHO)인 캐런 디살보에게 "미접종자들의 사무실 근무를 금지하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개인적 선택을 공개적으로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15만 명 이상을 고용한 구글의 백신 의무화가 다른 미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 대변인은 CNBC에 "백신 의무화는 우리 인력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며 "백신 의무화 정책을 굳게 지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100인 이상 기업들에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정기 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명령했으나, 법원이 이 명령 집행에 제동을 건 상태다.

악몽으로 변한 멕시코 복권 1등 당첨

멕시코 남부 오코싱고의 한 작은 어린이집이 지난해 2000만 페소(11억 2000만원)의 복권에 당첨된 것이 당첨금을 공동 관리하는 이 어린이집 원아들의 부모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악몽으로 변했다고 영국 B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어린이집은 24명이 넘는 원아들의 부모들에게 당첨금의 공동 관리를 맡겼는데, '로스 페툴레스'라는 지역 갱단이 당첨금으로 총을 구입해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협박했고, 이를 거부하자 학부모가 갱단으로부터 총격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부 가족들은 갱단을 피해 마을을 떠나 힘들게 살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갱단의 폭력 사태가 만연해 있으며 무장단체들은 영토 장악을 위해 경쟁자들과의 싸우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개선 등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매각하려 계획했었지만 이 계획 실행이 불가능해져 보류되면서 이른바 '대통령 전용기 복권'을 팔아 기금을 만들었다.

600만장의 복권이 장당 500페소(약 2만8000원)에 팔렸다. 100명에게 주어지는 당첨금은 2000만 페소로 멕시코 복권 사상 최고였다.

상당수의 복권들이 익명의 후원자들에 의해 구매돼 멕시코 전국의 가난한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기부됐다.

2020년 9월15일 복권 추첨이 이뤄져 100명의 당첨자 명단이 멕시코 언론에 보도됐다. 오코싱고 마을의 어린이집도 여기에 포함됐다.

복권 당첨은 처음에는 축하할 일이었지만 곧 문제가 시작됐다. 경쟁 집단을 공격할 계획을 세운 '로스 페툴레스' 갱단이 그들을 위한 총기 구매에 당첨금을 사용하라고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를 거부했고, 어린이집의 지붕을 고치는데 당첨금 일부를 사용했다. 이들은 당첨금의 나머지도 마을 개선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지난달에는 갱단이 마을의 여성과 아이들을 공격해 28가구가 피난에 나서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마을의 소, 집, 냉장고, 옥수수와 콩 수확물, 닭 등을 잃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아을 주민들은 지역 당국에 그들의 곤경을 호소하고 있지만 갱단이 무장해제되고 해산되지 않는 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얀마 탓마도 테러의 끝 '인간 방패'

1. 1995년 5월 26일

명 진 정 밀

뚤람수 로떼 9 만사나 A 섹또르 5
소나 4 데 믹스꼬
전화 : 이사삼사-이이오이/일오삼사
팩스 : 이사삼칠-팔구영칠
핸드폰 : 오영영사-영팔영육

마이깡 몰드 제작
재단기 부속 판매
패턴 포마 아크릴
마카지,패턴지,밑종이

미싱부속 판매
봉재용 소모품
각종 바늘 판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정 상 영 업

포장 및 배달 됩니다

주소 : 11 Calle 5-08 Z.9 / 오후 9시까지 영업

전화 : 오영일팔-일일칠육/이삼삼일-삼사일사/이사사일-오이육육

보스니아 내전이 끝나갈 무렵, 세르비아 민병대는 포로로 잡힌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인간방패로 이용했다. 3명의 포로들을 탄약창고 주변 기둥에 묶어 나토(NATO)군의 공격을 막았다. 전세계가 경악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 때도 등장했다는 '인간 방패'는 2천년 인류의 전쟁사에 흔한 장면이다.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그리고 이번엔 미얀마에서 또 '인간방패'의 야만이 되풀이된다.

2. 2021년 11월 18일
가장 교전이 치열한 미얀마 북서부 친(Chin)주.

미얀마 군은 11월 18일 밤 10시쯤 칼레이 마을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군 12명이 붙잡혔다.

그 중 9명은 부상자를 치료하거나 간호 교육을 받던 간호사와 학생들이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이 시민군의 마을 진입을 막기위한 '인간 방패'로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3명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주 칼레이에서 체포된 여성들, 대부분 학생들이다. 주민들은 이들이 시민군의 공격을 막기위한 인간방패로 동원됐다고 전했다. 백렘친(23)과 시민군 세르 탕 푸이아(27), 람 마위아(26)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사진은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제공했다.

지난주 칼레이에서 체포된 여성들, 대부분 학생들이다. 주민들은 이들이 시민군의 공격을 막기위한 인간방패로 동원됐다고 전했다. 백렘친(23)과 시민군 세르 탕 푸이아(27), 람 마위아(26)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사진은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제공했다.

3. 2021년 10월 6일 오후 3시
샨주 카테야(Kathea)마을. 미얀마 군은 처음엔 주민 7명을 납치했다.

몇시간 뒤 붙잡힌 주민은 19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보름이 지난 10월 21일, 5km 정도 떨어진 빼콘 타운쉽에서 목격됐다. 눈이 가려진 채 포승줄에 묶여 어디론가 끌려갔다. 포로 중에는 60세가 넘은 주민들도 있었다.

이날 미얀마군은 빼콘 타운쉽을 공격하면서 이들 주민 10여 명을 인간방패로 사용했다고 '미얀마 나우'가 보도했다. 역시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도 이같은 사실을 시민방위군(PDF)을 통해 확인했다. 시민방위군은 지난 8월말에도 미얀마 군이 시민 30여 명을 인간방패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카테야의 한 여성은 미얀마나우와의 통화에서 가족 2명이 납치 된 뒤 휴대폰이 계속 꺼져있다고 전했다. 10월 17일 빼콘 타운쉽에서 납치된 또 다른 남성은 손이 묶이고 얼굴에 가방을 씌운 뒤 어디론가 끌고 갔다고 마을 주민들이 전했다.

4. 5월 25일 새벽 6시
시민군이 지나던 미얀마군 트럭 6대를 기습 공격하고 며칠 뒤인 지난 5월 25일. 미얀마군이 2만 여 주민이 사는 산성마을 민닷에 진입했다. 헬기 공습과 함께 새벽부터 요란한 교전이 이어졌다.

시민군이 밀려나자, 미쳐 피난가지 못한 노인과 여성, 아이들 수백여 명이 마을에 억류됐다. 이중 18명이

차출돼 인간방패로 마을 입구에 배치됐다. 시민군의 마을 진입은 어려워졌다. 주민 상당수는 목숨을 걸고 마을을 빠져나왔다. 민가와 교회 등 수많은 건물이 파손되고 시민군과 주민 수십여 명이 사상했다.

민닷 주민들은 지난 4월, 미얀마군이 반 쿠데타 시위중 체포된 마을 청년들을 석방한다는 약속을 번복하자 정부군에 대한 무장저항을 시작했다.

5. 8월 13일
미얀마 국경지대 전역에서 미얀마 군의 인간방패 테러가 계속된다.

지난 8월 카야주에서 미얀마군 66사단이 주민 30여 명을 교전 지역 최전방에 배치했다고 이라와디가 보도했다.

마을에 남아있던 농민이거나 식량을 가지러 다시 마을로 들어왔다 체포된 (현지 언론은 납치라고 표현한다)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한 명은 15세였다.

지난 6월에는 샨주 모에비에서 10대를 포함한 4명의 주민이 인간방패로 끌려나왔다고 마을을 탈출한 한 주민이 전했다.

"이들은 모에비의 한 교회에서 체포됐으며, 17살 소년은 폭탄을 든 가방을 들었습니다. 철길 건너편에는 시민군(모에비 인민방위군 MBPDF)이 있었습니다. 도주할 수 없도록 이들의 얼굴에 비닐을 씌었습니다"

6. 탓마도...군대에서 테러집단으로
'탓마도(Tatmadaw)'라 불리는 미얀마 군은 과거 소수민족과의 교전에서도 자주 인간방패 전술을 이용했다. 쿠데타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서부 라카인주에서 주민 20여 명을 아라칸 반군이 개설한 지뢰밭을 앞장서 걷도록 했다.

지뢰가 터지면서 10대 2명이 목숨을 잃었다.(이후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이 이어지자, 미얀마군은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인간 방패' 범죄는 야만적이다. 미얀마는 가난하지만 야만적인 나라가 아니다.

(인구의 절반인 2,700만 명이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양곤에는 한국의 CGV가 영업중이다)

2021년 '인간방패'의 반인륜 범죄는 계속되고, 우리는 이제 이 참극을 SNS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목격한다. 폭력은 눈 앞에 있지만, 헤이그 조약이나 제네바 협정은 저 멀리 있다.

쿠데타 군부가 장악한 '탓마도'는 80여 년 전 미얀마 독립을 위해 창설됐다. 하지만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가 잇달아 집권하면서 군대는 타락하고 부패했다. 살육과 성폭행, 약탈 전문 집단으로 변해간다.

2월 1일 쿠데타 이후 죽은 1,286명의 시민 대다수가 탓마도의 테러로 숨졌다.

참고로 탓마도는 미얀마 말로 '국민의 군대'라는 뜻이다.

아마겟돈 막기 위한 소행성 충돌실험 시작

텍사스주 크기 만한 소행성이 시속 3만 7000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8일. 미국 정부는 14명의 우주인을 소행성에 보내 핵폭탄을 설치한 다음 터뜨리기로 한다.

1998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아마겟돈'의 줄거리다.

● 시속 2만 4140km로 소행성에 충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역사적인 실험이 시작된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24일 우주선을 띄워 지구에서 1078만km 떨어진 소행성에 충돌시켜 이동 방향을 바꾸는 DART(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이중 소행성 궤도 변경 시험) 미션을 시작한다. DART 우주선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3시 21분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스페이스X 팔콘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NASA 계획대로라면 DART 우주선은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28배인 670만 마일을 날아가 내년 9월쯤 소행성 디모도스 주위를 도는 위성 디모르포스에 시속 1만 5000마일(2만 4140km)로 충돌할 예정이다.

이번 임무의 목적은 우주 공간에서 충돌을 통해 소행성의 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NASA는 설명했다.

● 충돌 후 궤도 주기 73초가량 바뀔 듯

충돌 장면은 이탈리아 우주국이 제공한 초소형 위성인 큐브셋이 촬영한 다음 지구로 송출할 예정이다. 충돌 후 디모르포스의 궤도 주기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는 지구에 있는 망원경으로 관측할 것이라고 이번 미션에 참여한 NASA 본부 과학자 톰 스태들러는 말했다.

디모르포스가 디디모스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11시간 55분이다. 앤디 쳉 존스홉킨스 응용물리학연구소 DART 조사팀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충돌시험이 성공할 경우 공전 시간이 73초가량 바뀔 것"이라며 "언젠가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이 발견된다면 소행성의 주기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큰 추진력이 필요한지 가늠해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총 예산 3855억원 투입

유럽우주국(ESA)는 3년 후 헤라(HERA) 우주선을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에 보내 충돌 자국을 관찰하는 등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NASA가 주도하고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가 관리하는 DART 미션에는 총 3억 2400만 달러(약 38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현재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은 없지만 지구 가까이에 있는 소행성은 2만 7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린들리 존슨 NASA 행성방위담당관은 "지구 방어의 핵심은 소행성이 충돌할 위협이 되기 전에 사전에 찾아내는 것"이라며 "이후 위협이 될 소행성의 궤도 속도를 약간만 바꾸면 지구에 충격을 줄만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유명한 집

매주 화요일 쉽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MENU

떡만두국
떡 국
닭똥집 볶음
오리훈제구이
생삼겹살
닭도리탕
부대찌개
오리주물럭
삼계백숙
오리탕전골
도가니 수육
소모듬 수육
수육전골
매운 등뼈찜
매운 꼬리찜
뼈없는 닭갈비
감자탕 전골

2시간전 예약

등갈비 김치찜
한방 굴보쌈
한방 토종닭
한방오리수육

MENU

콩나물해장국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콩국수
잡채밥
육계장
뚝배기불고기
된장찌개
오징어볶음
제육볶음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우거지 갈비탕
도가니탕
꼬리곰탕
흑마늘 삼계탕
들깨 삼계탕
삼계탕
오리탕 뚝배기
감자탕 뚝배기
설렁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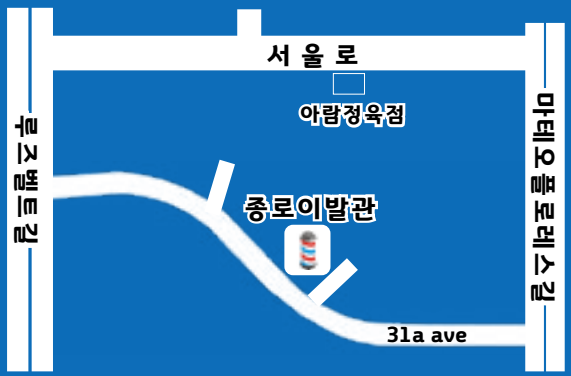


1Calle 35-09 Zona 7 col. Toledo / 2433-9788, 4646-1119

- 매주 화요일 휴무 -

종로 이발관

이발, 면도, 염색



31ave 0-63 Zona 7

4047-6842

2253-5508

영업시간:오전10시~오후6시

스 포 츠

얄미울 만큼 잘했던 장현수 알힐랄 우승 주역이었다

포항, 장현수 버틴 알힐랄에 0-2로 패하고 준우승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현수가 팀의 단점을 메우는 훌륭한 수비력을 펼쳤다. 포항 팬들 입장에선 참 얄미울 수밖에 없는 좋은 활약이었다.

포항은 24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 파드 스타디움에서 알힐랄과의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결승전에서 0-2로 패하고 준우승을 거뒀다.

1996-97, 1997-98년, 2009년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포항은 ACL 최다 우승 타이틀을 얻는 데 실패했다. 그 타이틀은 1991년, 1999-20년, 2019년에 이어 2021년 4번째 우승에 성공한 알힐랄이 차지했다.

알힐랄은 강했다. 후반 18분 추가골을 넣은 무사 마레가를 비롯, 바페팀비 고미스와 마테우스 페레이라 등 유럽 빅리그를 경험한 스타 공격수들의 존재감이 컸다.

하지만 이날 알힐랄을 우승으로 이끈 진짜 주역은 바로 한국 국가대표 출신 중앙 수비수 장현수였다.

이날 알힐랄은 공격에선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수비력은 좋지 않았다. 전방 압박을 펼친 공격수들의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렸고 공간을 커버하는 전술적 움직임도 부족함이 엿보였다. 그 불균형을 메운 게 장현수였다.

장현수는 빠른 발로 후방을 커버하고 동료들이 메우지 못하는 허점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헌신적으로 메웠다. 포항이 임상협과 크베시치 등을 앞세워 조금씩 틈을 찾으려 할 때마다 늘 장현수가 나타나 소유권을 가져갔다. 국가대표팀 시절 보여줬던 좋은 수비력을 이날도 유감없이 보여줬다.

또한 장현수는 팀의 정신적 지주였다. 경기 흐름이 포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지시하고 소통하며 전체 라인을 지휘하고 팀의 기세와 분위기도 이끌었다.

후방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한 장현수가 있던 덕분에 알힐랄은 공격에 비해 부족했던 수비력에도 불구하고 90분 내내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

2019년 알힐랄에 합류한 장현수는 2018-19시즌에 이어 통산 2번째 ACL 트로피를 거머쥐게 됐다.

'6만 8천명' 압도적 응원 불리한 판정까지.. 홈 이점에 당한 포항

포항스틸러스가 불리한 조건 속에서 12년 만의 왕좌 탈환에 실패했다.

24일 오전 1시(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파흐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가진 포항이 알힐랄에 0-2로 졌다. 단판으로 치러진 결승전에서 패한 포항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기장은 알힐랄을 응원하는 사우디 팬들로 가득찼다. 약 6만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킹 파흐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은 알힐랄 고유의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국 속 최근 ACL 결승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사우디에 거주 중인 한국 교민들이 포항을 응원했으나 규모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포항은 홈 관중의 함성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도 따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경기 미디어데이 인터뷰에서 "미디어데이 끝나고 나서 연습 경기가 잡혀 있는데 스틸야드에서 함성을 넣어서 훈련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시작부터 알힐랄 팬들의 일방적 응원이 엄청났다. 경기 시작 15초 만에 알힐랄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더 기세등등해졌다. 포항을 향한 야유와 조롱도 계속됐다. 특히 포항이 공을 잡고 공격을 진행할 때 야유를 퍼부었다. 분위기에 눌린 포항은 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홈 이점은 또 있었다. 이날 주심의 판정이 다소 아쉬웠다. 특히 후반전에 마테우스 페레이라가 박승욱에게 파울을 범한 뒤 공을 주지 않고 시간을 지연했다. 풋살 경기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이었다. 주심은 해당 장면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도 카드 한 장 꺼내지 않고 구두 경고만 줬다.

반면 포항 선수에게는 비교적 쉽게 카드를 줬다. 전민광이 상대 슈팅을 막으려다가 공이 팔을 스쳤는데 주심은 곧장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의도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주장 강상우도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주심의 표정은 단호했다.

결국 포항은 원정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졌다. 그러나 박수받을 만한 시즌을 보냈다. 주축 선수가 떠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승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준 포항이다.

월드컵 탈락 위기+ 가까워진 시대의 종말, 호날두는 살아날까?

포르투갈의 슈퍼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월드컵 본선 직행에 실패하자 그라운드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호날두 시대의 종말인가?

이대로 가면 안 됐다. 오로지 개인기량만으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경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HANSAE 중미 법인과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 내용

구 분	지원직무	지 원 자 격	채용인원	근 무 지
경 력	원단생산	1. 영어/스페인어로 업무 진행 가능자 우대 2. 경력 3년 이상	0 명	한세 GUATEMALA 법인
신 입	영업관리	1. 영어 / 스페인어 가능자	0 명	한세 GUATEMALA 법인
경 력	영업관리	1. 원단 관리 경력 3년 이상 2. 영어 / 스페인어 가능자	0 명	한세 GUATEMALA 법인
경 력	신규 프로젝트 총무	1. 영어 / 스페인어 우수자 2. 중미 신규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있는 자 우대	0 명	한세 GUATEMALA 법인
신입/경력	총 무	1. 영어 / 스페인어 가능자 2. 프랑스어 가능자 우대 3. 아이티 경력자 우대	0 명	한세 HAITI 법인
신입/경력	생산기획	1. 영어 / 스페인어 가능자 2. 아이티 경력자 우대	0 명	한세 HAITI 법인

■ 공통필수 자격요건

- 영어 공인어학 성적 소지자 (영어권 대학 졸업자 면제)
- 해외출장 및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색맹, 색약이 없는자

■ 접수 기간

- 채용시까지
- HANSAE PINULA 채용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제출 srpark@hansae.com

■ 전형 및 일정안내

서류 전형 ▸ 인적성검사 ▸ 1차 면접 ▸ 2차 면접 ▸ 채용검진 ▸ 최종 면접 ▸ 최종합격

*1차면접시 별도 언어 TEST 진행

■ 인턴 기간

인턴 6개월 근무 후 평가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 채용 (신입 채용에 한함)

■ 급여 수준

당사 내규에 따름

■ 문 의 처

- HANSAE PINULA 채용담당자 (502)4070-0453 srpark@hansae.com

■ 기 타

-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됩니다.
- 1차 면접시 제출서류 : 최종 졸업(예정)증명서(재학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기타 자격증 사본
- 최종 면접시 제출서류 : 1차 면접시 제출 서류에 대한 원본

기의 결과를 바꿔낸 '베테랑' 호날두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 축구(및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역사상 최다 득점자에 이름을 올린 호날두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보였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이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호날두가 자칫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포르투갈은 지난 15일(한국시간)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예선 A조 10차전에서 세르비아에 1-2로 패하며 죽음의 플레이오프로 향하게 됐다. 호날두는 2013년 플레이오프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이끄는 스웨덴을 격파한 바 있다. 이 기억이 되살아나지 못할 경우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는 2018년 FIFA 러시아 월드컵 16강에서 1-2로 패배한 우루과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월드컵이 열릴 때 호날두는 41세가 된다. 아무리 자기관리가 뛰어나더라도 불혹의 월드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2022 카타르 월드컵은 그가 5번째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버풀을 상대로 전반에만 4골을 허용하는 치욕을 당해서는 안됐다. 호날두가 커티스 존스와 거친 볼 경합 과정에서 퇴장감 파울을 범한 일 또한 없었어야 했다. 심지어 그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맨체스터 더비에서 침묵하며 맨시티의 일방적인 승리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호날두는 소속팀에서 영보이즈, 아스톤 빌라, 세르비아에 충격패를 당했다.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아일랜드전 무승부도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를 종합할 때 이번 시즌은 15년간 이어진 그의 화려한 선수생활 중 가장 가혹한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날두는 지난 15년 동안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1년에 평균 50골에 가까운 득점 행진을 이어왔고 평균 2차례의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좌절감을 느끼는 것과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 아무리 금방 사라질 좌절감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대다수의 팬들은 호날두의 개인 성적을 봤을 때, 올 시즌은 성공적이라 평가할 것이다. 리오넬 메시와 호날두 사이의 이른바 '메호 대전'은 축구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논쟁거리다. 이번 시즌 호날두가 소속팀과 대표팀을 합친 19번의 공식전에서 15골을 기록하는 동안 메시는 16번의 공식전에서 8골을 넣는 데 그쳤다. 호날두는 36세의 나이에도 별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그가 존경받는 클럽에서 프로 통산 800골을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적어도 펠레와 호마리우의 비공식 기록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호날두의 자만심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아무리 한 경기에 한 골씩 넣으며 분투한다고 해도 새로 등장한 스타 선수들의 그늘에 가려지기 마련이다. 호날두의 소속팀과 대표팀은 모두 혼란에 빠졌다. 2019년 UEFA 네이션스리그(UNL) 우승을 제외하면 페르난두 산투스의 포르투갈은 UEFA 유로 2016에서 우승한 이후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화려한 스쿼드에 비해 턱없이 부진한 모습으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포르투갈은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을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그들은 유로 2020 본선 진출에 실패한 세르비아조차 이기지 못했다.

더불어 현재 맨유는 90분 동안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호날두에게 밀려난 젊은 자원들이 벤치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며 크게 흔들리는 중이다. 지난 시즌 호날두는 유벤투스가 이탈리아 세리에A 4위에 머물며 커리어 로우를 찍은 바 있다. 이번 시즌 역시 최정상이 아닌 중상위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맨유가 4위권을 확실히 탈환할 수 있는 것처럼 포르투갈 또한 카타르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맨유나 포르투갈이 호날두의 '원맨팀'으로 전락한다면 그가 다시 한 번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릴 확률은 급격히 낮아진다. 호날두는 다른 그 어떤 선수들보다 더 오래 정상에 머물렀지만, 그의 시대는 곧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호날두의 눈물은 조국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천재' 오타니, 타자로 최고 올스타팀 투수로 세컨드 올스타팀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1위 표 30표를 휩쓸어 2021년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투타 겸업 천재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가 또 하나의 진기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오타니는 MLB닷컴이 홈페이지에 발표한 2021년 전체 결산 올스타 성격의 '올 MLB 팀'(ALL-MLB Team)에 투수와 타자로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MLB 사무국이 미국프로농구(NBA), 미국프로풋볼(NFL)을 본떠 2019년 올 MLB팀을 제정한 이래 오타니는 투수와 타자로 올 MLB팀에 동시에 이름을 남긴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오타니는 지명 타자로 포지션별 최고 선수들로 구성된 첫 번째(퍼스트) 올 MLB팀에 승선했고, 이어 선발투수로 차점자들의 조합인 두 번째(세컨드) 올 MLB팀에 뽑혔습니다.

오타니는 올 시즌 투수로 23경기에 선발 등판해 130⅓이닝을 던지며 9승 2패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했습니다.

타자로서는 홈런 46개를 쳐 리그 3위에 오르고 100타점, 103득점에 도루도 25개나 했습니다.

방망이 실력은 빅리그에서도 최상으로 평가받은 오타니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마커스 시미언(이상 토론토 블루제이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브라이스 하퍼(필라델피아 필리스) 등 당대의 타자들과 최고의 올스타 팀 라인업을 이뤘습니다.

또 투수로는 두 번째 올스타 팀에서 훌리오 우리아스(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케빈 가우스먼(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맥스 프리드(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잭 휠러(필라델피아) 등과 선발 투수진을 이뤘습니다.

퍼스트 올스타 팀의 선발진은 맥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셔저·워커 뷸러(이상 다저스), 코빈 번스(밀워키 브루어스), 로비 레이(토론토), 게릿 콜(뉴욕 양키스)로 구성됐습니다.

결산 올스타는 팬 투표 50%와 전문가 패널의 평가 50%를 합산해 선정됩니다.

토론토의 왼손 투수 류현진(34)은 2019~2020년 2년 연속 세컨드 올 MLB팀 선발 투수로 뽑혔습니다.

"Ryu 2선발이라면 명성 덕분" 加매체, 레이 재계약 가능성↓

이러다 둘 다 놓치는 것 아닌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내부 FA 로비 레이와 스티븐 마츠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두 선수는 올해 토론토 로테이션을 떠받친 원투 펀치였다.

캐나다 최대 매체 토론토 스타는 24일(한국시각) 메일백 코너에서 '블루제이스가 FA 선발투수 톱3 중 누구와도 계약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형 계약을 할 자금이 있고 장기 유동성에도 여유가 있지만, 그 2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다른 구단들을 제치고 최고액 제안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톱3 선발투수는 레이를 포함해 케빈 가우스먼, 맥스 슈어저를 말한다. 토론토 스타는 '슈어저가 토론토에 딱 어울리지만, 다저스나 다른 구단들보다 많은 돈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레이와 재계약하기 위한 금액에도 한계가 있을텐데, 베리오스에 줬던 금액 이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가우스먼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이 역시 토론토에게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결국 토론토가 할 수 있는 일은 트레이드. 매체는 'FA 대신에 현실적인 트레이드에 결국 눈을 돌릴 것으로 본다. 비용 절감에 나선 오클랜드가 이상적인 상대지만, 마이애미, 신시내티 등 임팩트 있는 투수자원을 가진 구단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다. 누구를 데려올 지 알 수 없지만, 획기적인 보강에 나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내년 시즌 류현진이 2선발로 시즌을 시작한다면, 그건 오로지 명성에 의한 것이다. (1선발 영입) 딜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마츠에 대해서는 친정팀 뉴욕 메츠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MLB.com은 이날 '친정을 떠난 지 1년도 안된 스티븐 마츠가 퀸스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메츠 구단이 마츠에게 FA 계약을 제안했다. 그가 추수감사절 이전에 결정을 내려주기를 메츠는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츠는 지난 주 빌리 에플러 전 LA 에인절스 단장을 신임 단장으로 데려오면서 선수단 보강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 MLB.com은 '메츠와 마츠의 재결합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인다'며 '메츠 뿐만 아니라 8개팀이 마츠에게 제안을 했다. 토론토는 물론, 보스턴 레드삭스, LA 다저스, 세인트루이크 카디널스, 에인절스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K O H
clinica dental

¿ 이빨이 아프십니까 ? ¡ 더 이상 고통은 NO !

En Koh Clínica Dental 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치주질환 치료, 신경치료, 치아 발치



교정, 보철, 미백
성인 및 어린이 스케일링
수술, 임플란트

Dr. Fernando Azmitia
Calzado Roosevelt 35-98 zona 7, Hospital de Día Itzamná, clínica #5
2485-6718 / 2485-6719 / 3148-1105
Búscanos en redes sociales
Facebook: @KohClinicaDental Instagram: @kohclinica

마츠는 지난 겨울 트레이드를 통해 토론토로 이적했다. 올시즌 14승7패, 평균자책점 3.82를 올리며 FA 시장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 토론토는 마츠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마츠와 계약하는 팀은 드래프트 지명권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태권도 최고수를 가린다 KTA 파워태권도 최강전 파이널 27일 개막

'2021 KTA 파워태권도 최강전 파이널'이 27일 서울 방이동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태권도 겨루기 경기 개선과 '친(親) 미디어형' 태권도를 위해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정확한 파워 표출을 위해 올해 '공기압 전자호구'를 채택하고 경기 규칙과 득점 체계에도 변화를 줬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나타난 태권도 겨루기 경기 방식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조치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으로는 회전 공격 시 파워 게이지 2배 차감, 소극적인 경기 또는 반칙으로 패널티 선언시 10초간 파워게이지 2배 차감, 경기장 8면에 30도 각도의 경사면 설치다. 모두 적극적인 경기와 화려한 기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경기는 남자 개인전 -75kg, +75kg 2체급과 남자 3인 단체전 1체급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최강전 시즌1과 시즌2에서 4위 안에 입상한 선수가 출전한다. 우승 상금 1000만 원(2위 500만 원, 3위 300만 원)을 두고 태권도 최강자를 가린다.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다빈과 장준을 비롯해 이대훈이 대회에 참관한다. 아울러 올림픽과 이 대회 방식에 대한 언론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대성-신유빈 완승!

2021 ITTF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파이널스 개막

한국탁구 대표팀이 미국 휴스턴 조지 R 브라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1 ITTF 세계탁구선수권 파이널스에서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무난한 출발을 알렸다.

가장 먼저 경기에 나선 선수는 여자 대표팀 최효주(삼성생명)였다. 최효주는 여자 개인단식 128강전 첫 경기에서 인도의 복병 수티르타 무케르지에게 4대 1(8-11, 11-4, 11-5, 11-0, 11-4) 승리를 거뒀다. 개인 첫 세계대회 첫 출전의 긴장감으로 첫 게임을 내줬지만 이후 빠르게 전열을 정비하고 내리 네 게임을 가져와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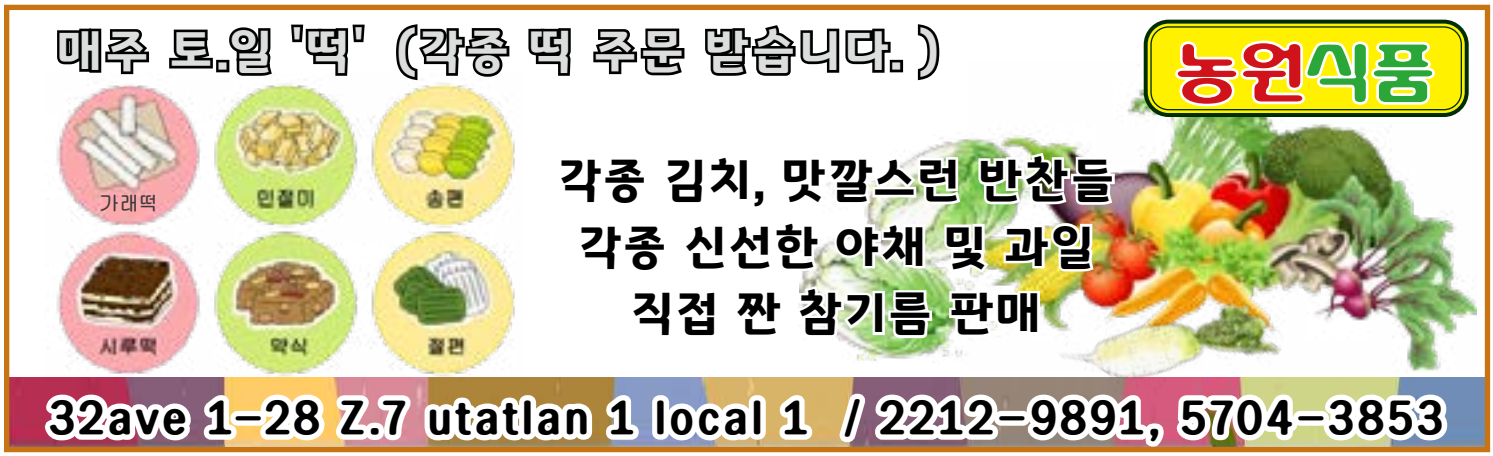
이어서 남자 개인단식에 임종훈(KGC인삼공사)이 나섰다. 임종훈은 이집트의 오마 아싸르에게 4대 1(11-9, 11-13, 11-4, 11-8, 11-7)로 승리했다. 상대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강자였지만 임종훈 특유의 각도 깊은 왼손 드라이브를 앞세워 어렵지 않게 승리했다.

혼합복식도 64강전 첫 경기에서 승리하고 기분 좋게 출발했다. 조대성(삼성생명)-신유빈(대한항공) 조가 홈그라운드에서 싸운 미국의 니키 쿠마르-에이미 왕 조에게 3대 0(11-8, 11-3, 11-6)의 완승을 거뒀다.

한국탁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조대성-신유빈 조는 이번 대회에서 각별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 경기인 32강전 상대는 만만치 않다. 루마니아의 오비디우 이오네스쿠-쇠츠 베르나네트 조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첫 경기를 무난하게 넘어선 한국 대표팀 막내들이 이어질 고비를 계속해서 넘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며 지켜볼 일이다.

24일 새벽(한국시간) 개막한 이번 대회는 개인전 선수권대회다. 남녀단식과 복식, 혼합복식 등 다섯 종목이 치러진다. 단식은 128강, 복식은 64강 토너먼트다. 29일 혼합복식 금메달이 결정되며, 마지막 날 단복식 챔피언이 가려진다(한국 시간 기준).

오상은·추교성 남녀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남자 이상수, 안재현, 조대성(이상 삼성생명), 장우진(국군체육부대), 임종훈(KGC인삼공사), 황민하(미래에셋증권), 여자 서효원(한국마사회), 전지희(포스코에너지), 이시온, 최효주(이상 삼성생명), 신유빈(대한항공)이 출전했다. 24일 먼저 경기를 치른 선수들 외에 나머지 선수들도 차례로 개인단식 경기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일상의 스트레스를 확 날리자~

도 레 미



오팔영사-영영삼영

23ave 1-43 Zona 7



축하합니다!

올해 5월에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미주 온라인 문예 공모전 중미카리브 협의회
최종 결선에서 2위를 차지한 앤지정 화실 원생
조은비 학생의 수채화 작품을 소개합니다.

제목: 빛을 향하여 작가: 조은비

크기: 44.8cm X 32.5cm (American School of Guatemala)

저에게 있어서 남과 북의 최고의 순간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으시며 걸음을 옮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푸른 숲에, 남한의 국화인 무궁화와 북한의 국화 목란 꽃을 사용하여 남과 북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담았습니다. 통일이 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두 나라의 밝은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빛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카톡아이디: angienius@gmail.com
전화: 5834-1414 웹싸이트: angiechung.com
이메일: whenartistheway@gmail.com

소수 그룹 대면수업 / 온라인 수업 진행중입니다.

시각예술로 가는 길. 앤지정 화실
한국 최대 입시 미술학원 그린쉽 과테말라 지점

방 송 / 연 예

박신혜, 최태준과 1월 결혼 팬들에게 임신 소식도 전해



배우 박신혜, 최태준이 연예계 대표 커플에 이어 부부가 된다.

23일 배우 박신혜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 최태준 소속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측은 박신혜와 최태준이 오는 2022년 1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결혼 소식에 이어 "서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약속하고, 결혼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 가운데 새 생명이 찾아왔다.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초기인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임신 소식도 전해 이목을 모았다.

■ 학교 선후배서 연인으로

두 사람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선후배로 인연을 맺었다. 절친한 사이였던 두 사람은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열애는 사실무근"이라며 대학교 선후배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8년 한 차례 더 열애설이 나자 이를 인정하고 연예계 공식 커플로 사랑을 키워왔다. 당시 양측 소속사는 2017년 연말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조용한 연애를 이어갔다. 지난해 6월, 박신혜는 영화 '#살아있다' 인터뷰에서 최태준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잘 만나고 있다"는 답으로 화제를 모았다. 박신혜는 "공개 연애라는 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 (하게) 됐으니"라며 "이것만 나가면 속상할 것 같다. 예쁘게 써달라"는 센스 있는 답변을 덧붙이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해 온 최태준은 지난 5월 소집해제 후 드라마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에 출연하며 복귀를 알렸다. 당시 최태준의 소집해제 소식에 이목이 쏠렸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스케줄에 집중하며 조용히 보냈다.

■ 결혼+임신? 해외도 '깜짝'

공개 열애를 약 5년째 이어오던 두 사람은 이제 선후배가 아닌 부부, 부모가 된다. 두 사람이 전한 깜짝 소식에 대중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해외 반응 또한 뜨겁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중국 최대 SNS 사이트인 웨이보의 연예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1위는 박신혜 임신, 3위는 박신혜 최태준 결혼이 랭크되어 두 사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는 일본, 캐나다, 미국, 스페인, 인도 등 해외 각국 팬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최태준은 2001년, SBS 드라마 '피아노'로 데뷔해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 '옥중화', '미씽나인', 영화 '양자물리학' 등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박신혜는 2003년 가수 이승환 뮤직비디오 '꽃'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드라마 '천국의 계단', '미남이시네요', '상속자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박신혜는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상속자들' 등을 통해 중국에서 대표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 마지막 SNS 뭐길래

'톱스타 부부'의 탄생, 2017년부터 열애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4년만에 연인에서 부부로 발전하게 됐다. 이에 SNS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박신혜는 지난달 11일 "내 사랑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를, 내 사랑들에게는 웃는 일들만 가득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이라는 글을 끝으로 다른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평소 꾸준한 SNS 활동으로 팬들과 소통해왔던 바. 일부 누리꾼들은 "결혼 준비 중이라 바빴을 것 같다", "이미 임신 소식을 알았으려나" 등의 추측을 이어갔다. 이처럼 두 배우의 열애, 임신, 결혼 소식이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최태준 박신혜는 내년 1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웨딩마치를 올린다. 결혼식은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체면 구긴 '지리산' 전지현, 시청률 굴욕에 '망드' 마케팅까지

넷플릭스에 한국산 좀비 열풍을 불러왔던 '킹덤' 김은희 작가의 극본에, 톱스타 전지현, 주지훈까지 투입되며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tvN주말극 '지리산'이 굴욕사를 쓰고 있다.

화제성이 몰린 1~2회 반짝 전국시청률 10%를 찍은 뒤 7~8%대의 시청률을 오가며 후반부로 접어든 최근까지 썩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모양새다. 드라마 상황도 갑갑한 마당인데, 한 대기업 임직원몰에 올라간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판촉 문구가 새삼 화제를 모았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채용 공고

근무 부서	직 급	직 무	직 책	고용형태
LG 과테말라 지점	사원 또는 대리급	1. PM (Product Manager) / 1명 2. ISM, OSM 담당자 / 1~2명	팀 원	정규직

주요 업무 내용

[PM (Product Manager) / 1명]

1) LG 전자 신제품 소개 및 시장 내 제품 분석
   - 신모델 런칭 / 주요 Retail 대상 제품 소개 및 피드백 분석

2) 시장 정보 수집
   - 자사 및 시장 가격 모니터링 분석 / 주요 시장 동향 분석

3) 자사 제품 판매를 올리기 위한 활동 기획
   - 각종 마케팅 활동 부서간 협업 후 성과 창출 / 주요 Retail 매장 활동 Guide 수립

[ISM, OSM 담당자 / 1~2명]

1) In Store Management 담당 AE
   - In Store 제작물(집기) 디자인 감리, 제작물 품질 감리
   - 유통매장 허가 및 커뮤니케이션
   - In Store 관련 기타 제작물 디지인 감리, 제작물 품질 관리

2) On Line Store Management 담당 AE
   - 담당 지역 유통사 및 LG.Com 페이지 LG 제품 이미지 매칭 여부 감리
   - 제품 설명 및 관련 비디오물 오류 감리 등
   - 랜딩 페이지 오류 감리 감독

[지원 자격]

학 력	경 력	필 수 요 건
대졸이상	0~4 년	스페인어 / ISM 담당자 : In Store 경험자 우선

우대 사항 / 비고

[우대 사항]
- 한국어 / 영어 가능한 자
- 마케팅 업무 경력자

[채용 대상]
- 신입 ~ 대리 (경력자 우대)
- 연령 : 20대 중반 ~ 30대 초 / 성별 : 상관 없음.

[기 타]
- 접수 기한 : 채용시까지
- 전형 방법 : 입사 지원 서류 / 면접
- 제출 방법 : E-mail 접수 / anabel.torres@lge.com / 5517-9163

최근 이 몰에서는 사내직원용으로 네파 패딩점퍼를 특가할인했는데, 홍보문구로 '지리산은 망했지만, 네파는 네팝니다'라는 웃픈 글을 올려 빈축을 샀다. 네파는 국립공원레인저들의 이야기를 다룬 '지리산'을 제작 지원하는 아웃도어브랜드로 주인공 전지현이 이 브랜드 모델이기도 하다.

아직 드라마가 종영도 하지 않은 마당에 "지리산은 망했지만"이라는 단정적인 문구가 사용된 글이 올라왔으니, 네파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큰 돈을 들여 협찬을 진행했는데, 드라마 전개와 어울리지 않는 장면들이 많아 극초반부터 PPL 관련 논란도 큰 상황이다.

네파 측은 이와 관련해 "브랜드 자사 몰은 아니고, 한 기업체의 임직원 쇼핑몰에 올라온 팝업창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현재 문제의 홍보물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지리산'은 오는 27일 16부작의 최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11회 방송을 앞두고 있다.



'학교 2021' 오늘(24) 첫방 열여덟 청춘의 성장기

'학교 2021'이 오늘(24일) 베일을 벗는다.

KBS2 새 수목드라마 '학교 2021'(극본 조아라 동희선, 연출 김민태 홍은미)은 입시경쟁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아이들, 모호한 경계에 놓인 열여덟 청춘들의 꿈과 우정, 설렘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KBS 대표 학원물 '학교' 시리즈의 8번째 작품으로 기존 '학교' 시리즈와 달리 특성화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다. 남들보다 일찍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동희선 조아라 작가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아이들도 보통의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과 똑같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수능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보통 아이들, 수업 내용만 다를 뿐 보통 10대와 똑같이 진로, 친구, 연애 고민을 하는 고등학생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며 집필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작품에는 배우 김요한 조이현 추영우 황보름별 서희선 김강민 등이 연기 호흡을 맞춘다. 김요한은 부상으로 11년간의 꿈이었던 태권도를 그만둔 공기준 역을 맡는다. 조이현은 목수라는 확실한 꿈을 가진 진지원 역을 연기한다.

추영우는 따라다니는 소문이 많은 비밀스러운 전학생 정영주으로. 황보름별은 남다른 의지를 가진 강서영 역으로 분한다. 이들이 보여줄 케미와 풋풋하고 싱그러운 청춘의 모습에 기대감을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학교 2021'은 첫방송 전부터 배우 교체,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등 잡음 등에 휩싸이기도 했다. 과연 '학교 2021'이 이러한 잡음을 딛고 '학교' 시리즈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학교 2021'은 24일 오후 9시 30분 첫방송 예정이다.



'고스트버스터즈' '매트릭스' 부활 과거 명성 이을까

1980~90년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추억의 명화들이 속편으로 돌아온다. 내달 1일 개봉하는 '고스트버스

Taller Cartech Guatemala

한국어 상담 3181-4032

▶판금 도색 [사고차] 전문
- 프레임 머신에 의한 정교한 프레임 교정
- 최선 컬러 매칭 소프트웨어
- 열처리 도색

▶도색 1년 A/S
▶자동차 경정비
▶차량 수입 대행
▶순정/비순정 부품 수입



2296-2652 TallerCarTech Taller Cartech Guatemala Boulevard Tulam Tzu 39-80 A Z.4 de mixco

Seguros MAPFRE GUATEMALA
자동차 보험·화물차 보험·건강보험·생명보험·단체보험
Mapfre 보험은 국제적인 기업으로서 타보험사보다 저렴하며 안정적입니다
Fernada Gonzalez / 4219-5181
※자동차 보험 사전검사는 정비소에서 할수 있습니다

C.R. TEXTIL, S. A. 직원모집

■ 모집부문

구 분	부 서	인 원
경 력	관리 / 총무	0 명
신 입		

■ 자격요건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스페인어 가능자 우대 / 경력자 우대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

■ 기 타
- 접수 기한 : 채용시까지
- 전형 방법 : 입사지원 서류 / 면접
- 제출 방법 : e-mail 접수 [hwsukga@gmail.com]
  tel.4587-8777



터즈 라이즈'와 12월 개봉 예정인 '매트릭스:리저렉션'이 그것. 두 영화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고스트버스터즈'와 '매트릭스'의 새로운 작품이다.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리부트가 아닌 시리즈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시퀄은 선택해 원작을 기억하는 팬들의 추억을 소환하고 있다.

'고스트버스터즈' '매트릭스' 레전드의 귀환

'고스터버스터즈'(1984)는 심령연구를 하다가 좌천당한 과학자들의 유령 소탕 활약을 그린 이야기. 영화는 개봉 당시 3000만 달러라는 적은 예산으로 북미에서 2억 4358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크게 흥행했다. 영화는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패러디할 정도로 인기가 여전하다. '고스터버스터즈' 시리즈는 1984년 1편, 1989년 2편이 나온 뒤 27년 만인 2016년 여성 버전으로 리부트한 '고스터버스터즈'가 선보였다. 이 영화는 1억 4400억 달러를 들여 제작을 했는데 북미에서 1억 2835만 달러(월드와이드 2억 2915만 달러)에 그치면서 흥행에 실패했다. '고스터버스터즈 라이즈'는 32년 만에 시리즈 부활을 알린 '고스터버스터즈'의 속편이다.

'매트릭스'(1999)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SF 대표작으로 손에 꼽히는 작품이다. '매트릭스'는 인공지능(AI)에게 지배받는 가상현실에서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영웅을 찾는 내용을 담는다. 가상현실과 AI를 소재로 기존에 없었던 스토리와 비주얼을 구현해내 영화사(史)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작품이다. 특히 화면이 정지한 듯 몸을 젖히며 총알을 피하는 장면은 촬영 기법의 혁신을 가져다줬다는 평가다. '매트릭스' 시리즈는 '매트릭스'(1999) '매트릭스2:리로디드'(2003) '매트릭스3:레볼루션'(2003) 트릴로지로 이야기를 완결하는 듯했으나 4편인 '매트랙스:리저렉션'으로 18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원작과 이어지는 속편…신구세대 다 잡을까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와 '매트릭스:리저렉션'에 관심이 쏠리는 건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기 때문이다.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는 전설적 존재인 고스터버스터즈의 유산을 발견한 남매가 부활한 유령들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 빌 머레이, 댄 애크로이드 등 오리지널 시리즈의 주역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져 원작 팬들에게 반가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원작을 연출한 아이반 라이트만의 아들 제이슨 라이트만이 연출하고 할리우드 라이징 스타로 부상 중인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핀 울프하드, 영화 '어메이징 메리' '애나벨 집으로'의 맥케나 그레이스가 새롭게 합류해 세대교체를 예고하며 관심을 모은다. '매트릭스:리저렉션'은 인류의 영웅 네오가 다시 깨어나 보다 진보한 가상현실에서 기계들과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는다. '매트릭스' 시리즈 라나 워쇼스키 감독의 연출로 키아누 리브스, 캐리 앤 모스가 시리즈에 컴백한다. 영화는 새로운 촬영 기법 예고와 더불어 키아누 리브스와 캐리 앤 모스의 재회 장면으로 화제를 모은 예고편부터 원작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영화홍보사 플래닛의 김종애 대표는 "프랜차이즈(시리즈) 영화들의 장점은 검증된 세계관과 캐릭터를 바탕으로 대중의 관심을 손쉽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고스트버스터즈'나 '매트릭스'의 경우 원작이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그 영화를 봤던 세대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하고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재미로 다가갈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프랜차이즈 영화들은 원작의 인기에 따른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고 짚었다.

가상세계 · 무인도서 미션 수행..영역 넓히는 서바이벌 예능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 가상세계, 무인도로 자리를 옮기며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TV와 OTT에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깔을 지닌 새로운 형식의 서바이벌 예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승기, 은지원 '신세계로부터'

넷플릭스는 지난 20일부터 새로운 서바이벌 예능 '신세계로부터'를 공개 중이다. 총 8편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에 2편씩 공개된다.

'신세계로부터'는 이승기, 은지원, 김희철, 조보아, 박나래, 카이까지 여섯 멤버가 6일간 가상세계인 신세계에서 함께 살며 미션을 수행한다. 이곳에서만 통용되는 '냥; 단위의 화폐를 획득해 생활하는 일종의 생존 게임이다. 넷플릭스가 내놓은 10번째 오리지널 한국 예능 프로그램으로 스튜디오 촬영 예능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자랑한다. 국내의 어느 한 섬을 통째로 꾸민 신세계는 마치 게임 공간처럼 멤버들마다 평소 꿈꾸던 집이 숙소로 제공된다. 상점, 레스토랑, 요가원, 은행 등도 운영된다. 현실 세계와는 다른 물가가 적용되는데 커피 한잔에 400냥, 아침 식사에 2000냥에 판다.

멤버들은 더 많은 화폐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먼저 공개된 1~2편에서 '오징어 게임'을 연상시키는 초록색 체육복을 입고 나온 김희철이 파산에 가까운 잔고로 짠한 웃음을 줬다. 멤버들이 화폐 획득에 열을 올리는 데는 섬을 나가는 마지막 날 이 화폐를 원화로 환전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화폐를 차지하기 위한 멤버들 간의 배신, 음모 등도 관전 포인트다.

서바이벌 다큐멘터리 '문명'

웨이브는 지난 19일 '서바이벌 다큐멘터리'를 표방한 오리지널 예능 '문명' 전편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무인도에 고립된 사람들이 2주 동안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출연자들 간의 경쟁을 내세운 다른 서바이벌 예능과 달리 살아남기 위해 협력하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한다. 특전사 출신 박도현, 국가대표 상비군 수영선수 박찬이, 그룹 위아이 멤버 장대형 등 출연자 10명이 무성한 풀에 뒤덮여 사람이 다닐 만한 길조차 없는 무인도에 집을 짓고, 물을 정화해 식수를 확보하는 과정 등을 따라간다.

OTT 오리지널 예능이 스튜디오를 벗어난 시도를 하는 가운데, 방송가에도 새로운 형식의 서바이벌 예능이 자리를 잡는 분위기다.

세계 특수대원들과 겨룰 국가대표 특수요원 뽑지 '더 솔져스'

SBS의 '더 솔져스'는 세계 특수대원들과 겨룰 대한민국 국가대표 특수요원을 뽑는다. 올해 상반기 채널A가 선보인 '강철부대'를 잇는 밀리터리 예능인 셈이다. '강철부대'가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전투 자체에 집중했다면, '더 솔져스'는 세계 밀리터리 서바이벌 대회에 참가할 최고 요원 선발이 목표다.

MBC의 '피의 게임'도 볼만하다.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이라고 불리는 이 예능은 밀폐된 공간에 갇힌 10명의 참가자가 최후의 1인에게 돌아갈 거액의 상금을 놓고 배신, 거짓, 음모, 모략 등을 벌이는 치열하고 처절한 생존 게임이다.

'AMA' 대상으로 국격 높인 방탄소년단..병역법 재논의에 미칠 영향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이하 2021 AMA)'에서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의 주인공이 됐다. 이 시상식 무대에 처음 올라 'DNA'를 열창한 2017년 이후 4년 만에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에서 '대상' 트로피를 안았다.방탄소년단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페이보릿 팝 송', '페이보릿 팝 그룹' 등 후보에 오른 3개 부문을 싹쓸이했다.

이들은 수상뿐만 아니라 콜드플레이와의 합동 공연으로 시상식의 열기를 끌어올렸고, '버터'로 '2021 AMA'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2021 AMA'의 마지막 무대는 온통 '버터' 로고 이미지인 노란색으로 물들었고, 방탄소년단의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끝으로 시상식이 막을 내렸다. 시상식의 시작과 끝을 방탄소년단이 열고 닫은 셈이다. 4년 전, '한국 출신 보이밴드'로 첫 등장한 일곱 멤버는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성장해 'AMA'를 장악했다.

방탄소년단이 올해 'AMA'에서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하자 내년에 열리는 제64회 '그래미 어워드' 후보 발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후보 지명을 넘어 '제너럴 필드'라 불리는 4대 본상의 유력한 후보로 점쳐진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2일 방탄소년단의 'B버터'를 '올해의 레코드' 후보로 꼽으며 "이번에 '올해의 레코드' 부문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도 '버터'를 '올해의 레코드' 후보로 예상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MEGA IPTV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방송을 ...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시청가능!
서비스 및 문의전화 : 사영이영-사영삼영

1. 한국에서 방송중인 실시간 50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
2. 실시간 방송 외 영화, 드라마, 예능/오락,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유아/어린이 등 원하는 시간에 시청가능
3. 기타 타사 IPTV의 고정관념 버퍼링 및 끈김현상 완벽 보완
4.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시청하지 못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저희 가 방문 후 MEGA IPTV로 바꿔 드리고 동시에 남은 잔여일을 보장 가능
5. 다양한 시청료 패키지
   6개월 / 12개월 + 설치비 무료!! 및 환불보장!!
6. 차별화를 둔 신속한 A/S



업무시간: 8:00 ~ 5:00 (업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요일 및 방문시간 조정가능)
(전화연결 안될시 문자 및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LINDA BEAUTY

HAIR / NAIL / FACE / BODY
FOR MEN & WOMEN

§ 바디케어
힐링 전신 피로 쫙 마사지
힐링 전신(부분) 통증 및 순환관리
출산 전.후 스트레스 쫙 마사지

§ 스킨케어
린다 촉촉 일반케어
린다 톡톡 비타민 케어
린다 탱탱 카복시+앰플케어
린다 모공 쏙 스켈링 케어
린다 여드름 케어
린다 반짝 반짝 효과짱 필링

§ 린다뷰티 헤어
손상모 회복 프로그램
모낭충 두피관리 프로그램
셋팅, 매직펌, 볼륨 매직펌, 일반펌
메니큐어(손상 모발 회복)
염색



상담예약 : 2228-7167, 3034-2131 / 오전 8:00 ~ 오후 7:00 영업
구글지도 & WAZE 에 [LINDA BEAUTY] 라고 치고 오세요. 16calle 3-54 Z.14

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2021 AMA'에 이어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과연 '버터'를 본상 후보로 올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들이 '2021 AMA'에서 수상한 뒤 "저희 일곱 명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다. 음악의 힘과 전 세계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다. 기적과 같은 일이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다.

방탄소년단이 '2021 AMA' 대상 수상이라는 엄청난 쾌거를 거둔 동시에 병역법 개정안 논의도 재개돼 눈길을 끈다. 오는 25일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가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낭보가 전해지면 어김없이 병역 문제가 뒤따른다. '2021 AMA' 대상과 함께 병역법 개정안 논의 시기가 겹치면서 이번에도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병역법 개정의 취지는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방탄소년단이 연일 세계 최초, 최고의 기록을 쓰며 낭보를 전하고 있는 만큼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노미네이트와 단독 공연을 펼치고, 미국 3대 시상식이라 꼽히는 'AMA'에서 49년 만에 비영어권 가수의 대상이라는 새 역사를 쓰는 등 방탄소년단은 K팝을 넘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순수예술의 경우 국제 콩쿠르나 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이 면제되지만, 대중문화예술에서는 병역 연기가 최고의 혜택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의 경우 정확한 기준이나 지표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더 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방탄소년단이 병역 혜택을 받아도 무방할만큼 나라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국민적 정서가 우선인 것도 사실이다.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담보가 없다면, 병역 혜택갑론을박 속 국방위원회 소의원회에서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쥬라기월드: 도미니언' 내년 6월 개봉 제작 총괄은 스필버그

영원한 호기심의 대상, 공룡은 계속해서 영화화된다.

'쥬라기 월드'의 세 번째 작품인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콜린 트레보로우 감독)'이 내년 6월 전세계 동시 개봉을 확정하고, 스페셜 프롤로그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이제까지 '쥬라기' 시리즈에 등장하지 않았던 7종의 새로운 공룡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도심 속 자동차 극장에 공룡들이 등장하면서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묘사한다.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각본가이자 '쥬라기 월드',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감독 콜린 트레브로우가 직접 연출한 이번 영상은 내년에 개봉하는 3편에 등장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시리즈를 사랑해 준 전세계 영화팬들을 위해 만든 5분 간의 별도 콘텐트다.

특히 '쥬라기' 시리즈의 시작이 된, 공룡의 DNA를 가진 모기가 어떻게 호박 속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6500만 년 전으로 돌아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 흥미를 유발한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은 크리스 프랫,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뿐만 아니라 '쥬라기 공원'(1993)의 주연 샘 닐, 로라 던, 제프 골드블럼이 함께 출연한다.

더불어 1편을 맡았던 콜린 트레보로우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으며, 이와 함께 '쥬라기 월드'의 존 슈와츠먼 촬영감독이 다시 합류하며, 제작 총괄로 스티븐 스필버그까지 참여한다.

'쥬라기 월드' 시리즈는 2편만으로도 전세계 흥행 수익 2,978,868,581달러(한화 약 3조 6,16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흥행 수익을 거둔 바 있다. 국내에서도 역대 최초 오프닝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운 '쥬라기 월드' 시리즈는 두 편만으로도 무려 12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스페셜 프롤로그 영상으로 전세계를 강타한 블록버스터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은 2022년 6월 전세계 동시 개봉한다.

"송혜교는 송혜교네" 패션 대란..착용 제품 완판에 리오더까지

배우 송혜교의 화려한 컴백으로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SBS 금토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지난 12일 첫 방송 이후 연일 화제다. 특히 극 중 패션회사 디자인팀 팀장 '하영은'역으로 등장한 송혜교의 패션 스타일링은 톡톡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이별'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 달고 짜고 맵고 시고 쓴 이별 액츄얼리이다. 극 중 송혜교는 패션회사 디자인 팀장인 '하영은' 역을 맡았다. 송혜교는 일도 사랑도 당당하고, 열정 가득한 캐릭터인 하영은을 그녀만의 섬세한 감성 연기로 완벽하게 소화했다. 연기력은 물론 그녀의 패션 역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연일 이슈를 모으고 있다.

송혜교는 극 중 패션회사 디자이너답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패션 스타일링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주 방송된 3회에서는 화려한 컬러가 돋보이는 레드 컬러 트렌치코트에 메이크업 또한 레드립으로 연출하여 강렬하면서도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4회에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서는 블랙 버튼 배색이 포인트인 페미닌한 실루엣의 화이트 롱 코트를 착용하여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지난 1회에서 송혜교가 착용하여 주목을 받은 그레이 트렌치코트는 방영 직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1차 판매분이 빠르게 완판 됐으며 2차 리오더 생산 중에 있다는 전언. 해당 브랜드 관계자는 “송혜교가 착용한 드라마 속 착장 제품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극 중 패션 디자이너 역할에 맞는 송혜교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이 브랜드와 잘 어우러져 지속적인 판매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2주 연속 금토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3회는 수도권 및 전국 기준 시청률 7.3%를 기록하며 2주 연속 금토 드라마 시청률 1위 및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하영은이 윤재국(장기용 분)에게 10년 만에 전 연인의 죽음을 전해들은 순간의 아련한 ‘빗속 엔딩’에서 최고 시청률 9.6%까지 치솟았다.

'바퀴달린집3' 측 "정해인 지창욱 출연" 성동일 김희원과 재회

배우 정해인, 지창욱이 '바퀴 달린 집3'에 출격한다.

tvN 측은 11월 24일 뉴스엔에 "정해인, 지창욱이 '바퀴 달린 집3'에 출연할 예정이다. 현재 방송일은 미정이다"고 밝혔다.

'바퀴 달린 집'은 바퀴 달린 집을 타고 전국을 유랑하며 소중한 이들을 초대해 하루를 살아보는 버라이어티. 시즌3에는 배우 성동일, 김희원, 공명이 출연 중이다.

정해인은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성동일, 영화 '임금님의 사건수첩'에서 김희원과 인연을 맺었다. 지창욱은 내년 첫 방송 예정인 새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에서 성동일과 연기 호흡을 맞추는 가운데, 이들의 리얼리티 예능 케미스트리를 기대케 한다.

'바퀴 달린 집3'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된다.



교 민 장 터

교민장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과테말라 거주 한국 교민들을 위한 무료 장터 입니다

Condado Naranjo 아파트 세 놓습니다. 방 3개 + 식모방 1 개, 주차2대, 보데가 포함
5693-4552

업소용 제면기 구매 합니다.
5923-1179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azda CX5 2019 풀옵션
Agencia 무사고 30,000KM
$26,000 네고가능
5782-0001

책 판매 (옛이야기책,
세계명작동화, 위인전)
연락처 : 4757-6607

월세만 내시고 식당
운영 하실분 연락주세요
5186 - 2484

Kia Picanto LX 2020년씩
(AGENCIA) 오토; 7,800 km
Q. 68,000 네고가능
연락처: 24727108, 24727109

5단 음식 건조 트레이 판매Q500
깔레아 책꽂이겸장식장Q1200
의자5개 각Q500, TV장Q1400
3190-8119 왓즈앱

소나 15 나무벤또
양도합니다
5704-7744

현대 베라크루즈 2012년
85,000km,gencia,Silver
Android auto Q8,5000
5018-3200

전기 Estufa 팝니다
기타 주방 전자제품 살림살이
연락처 : 4757-6607

중고 노트북 구입원함(회사 업무용)
중고 가죽쇼파 구입원함(6인용)
연락처 3042-6234

2017년식 KIA RIO 판매
33200miles, automatica
7500$
Tel : 3354-5123

중고탁구대 구입 원합니다
4067-7522

현지인 손님 많은 매출 확실한
Zona 7 식당 양도 합니다
2317-5628 / 4263-6491

차 팝니다
마스다 CX - 5
2015년 할부 가능
전화 ; 3071-8053

쏘나11 라스차르까스 발코네스 아파트, 방3개, 화장실2개, 주차2대. $650 관리비 별도.
5308-4441

zona 7 Di Fiori 아파트 1층
세놓습니다. 방3개, 주차2대,
보데가 포함 3762-3864(카톡)

벤츠 GLK 250 4MATIC 2014
AGENCIA, 은색, 가죽,
무사고, 89,324KM
$20,000 Tel: 3024-2065

레스토랑 양도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whatsapp 연락 주세요.
3083-9459

KIA CERATO (K3) 2014
아헨시아, GREY, 오토
풀옵션,95,000kms, $8,000
TEL : 5001-1006

구 인 / 구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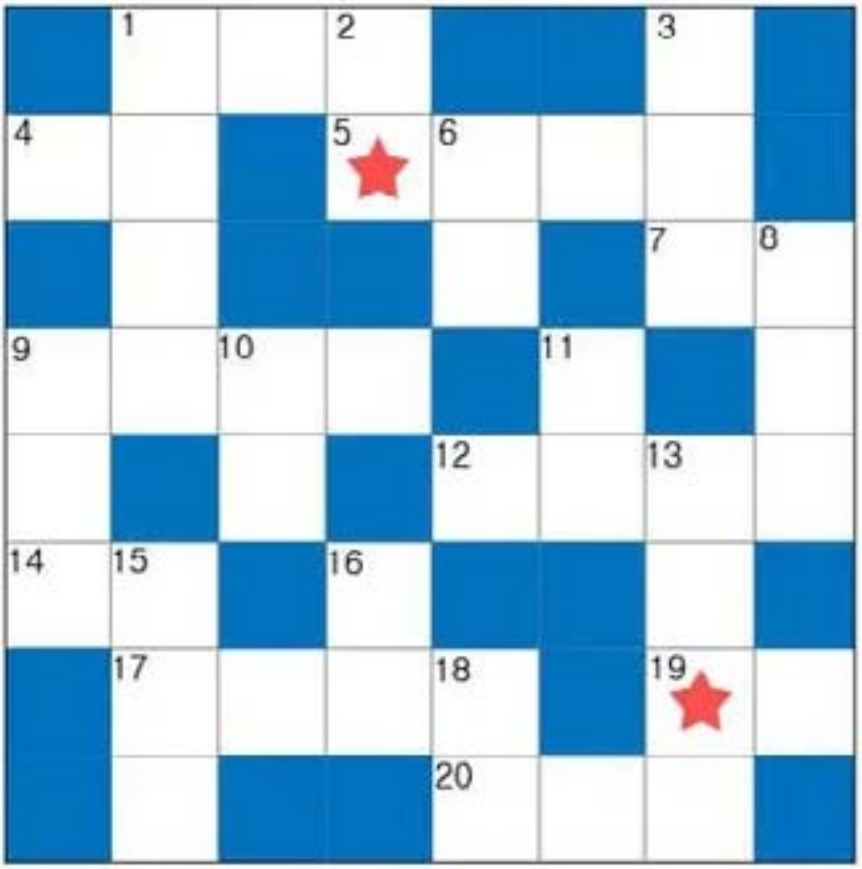
원단 유통 관리자 모집
(해외 파견 가능자)
4586-9335
zhishantex101@gmail.com

구 직
총무,인사,수출입,자재,대관공서
3617-8450
holaguatemala@outlook.com

HANSAE 중미법인
채용공고
43 페이지 참조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날 말 퀴 즈



지난 답



속담 : 동가○ 서가○

* 가로열쇠

1.학교에 다니기 위해 내는 돈
4.윗사람으로 떠받듦
5.음식물의 섭취를 조절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하는 방법
7.예상이나 추측에 꼭 들어맞음
9.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처리함
12.조선 시대에, 통치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
14.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음
17.자동차에 정하여져 있는 최고 또는 최저 속도
19.술에 흠뻑 취함
20.전파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 세로열쇠

1.등대를 지키는 사람
2.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음
3.법령이나 규범에 맞는 것
6.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8.초반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싸움
9.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10.어른이 귀여워해 주는 것을 믿고 버릇없이 구는 일
11.정치의 국면
13.조선시대 궁중의 남자 조리사
15.배움이 가장 뛰어난 제자
16.어설프고 빠름
18.피하여 달아남

서 녀 전

그 어떤 소식도 알 수가 없었다. 오직 금위군이 경성을 통제하고 있고, 그중 일부가 오성병마사에서 왔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노대부인은 몰래 사람을 보내 강윤아에게 물었다. 그 결과, 장오 역시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았으며 윤아는 끝까지 친정으로 가지 않고 집을 지키며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인들은 한데 모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 오직 묵란의 작게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여란은 왕씨의 품에 안겨 있었고, 해씨는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장풍은 초조하게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고, 장동은 두려움이 가득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명란의 소매를 잡은 채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명란은 온몸에 한기를 느꼈다. 뼛속에서 배어 나온 한기였다. 그토록 더운 날씨에, 명란은 추워서 몸을 떨고 싶었다.

명란은 처음으로 가장이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만약 성굉이나 장백이 죽었다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성굉이 좋은 아들, 좋은 남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버지로서는 합격이었다. 그는 자녀들을 훈육한답시고 무작정 욕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의 학업을 검사하고, 지도를 아끼지 않았으며, 예절도 가르쳤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 세심하게 가정을 살폈으며, 사방으로 좋은 스승을 수소문하고 다녔다.

장동 역시 성굉이 친분을 이용해 경성에서 좋은 학당을 다니고 있었다.

명란은 울음을 참기 힘들었다. 그런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흘째 되던 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삼왕야가 반역을 꾀하다 실패해 사약을 받았다는 소식만 암암리에 전해졌다. 지금 사왕야가 명을 받아 함께 반역을 한 자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삼왕부의 경학 스승 몇 명과 첨사부 소첨사 이하 8인이 사형을 당했으며 문화전 대학사 심정 대인, 내각차보 염대인, 이부상서에게는 반역 공모죄로 하얀 비단을 내려 자진케 했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 많은 관원들이 연루돼 옥에 갇힌 후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런 소식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삽시간에 온 경성에 떠돌았다. 성부의 여인들은 더욱 안절부절못했다.

"옥이 뭐 하는 곳이지?"

여란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그곳에 있는 건가?"

묵란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

"황제 폐하의 명으로 옥에 갇히면 죽이지는 않아도 온몸의 가죽을 벗긴다던데! 설마..... 아버지와 오라버니도..."

명란이 딱딱한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넷째 언니, 함부로 얘기하지 마. 아버지와 오라버니는 신중하셔서 작당 같은 건 하지 않으셨어. 삼왕부와 왕래도 없었는데 어떻게 옥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건 모르는 일이란다!"

줄곧 뒤에 서 있던 임이랑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마님과 평넝군주가 자주 왕래를 하는데 평넝군주가 육왕의 사돈이지 않느냐. 육왕과 삼왕은 같은 편이고....."

"그 입 다물 거라!"

임이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대부인은 갑자기 분노하며 소리쳤다. 그리고 펄펄 끓는 뜨거운 차가 담긴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사방에 뜨거운 물이 튀었고, 노대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앞에 섰다. 명란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그 어떤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수 없는 소리는 그만하거라! 누구라도 입을 함부로 놀리면 내 가만히 두지 않을 게야!"

노대부인은 살기등등하게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왕씨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고, 임이랑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노대부인이 단호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무장들의 처들은 가장이 출정을 나가도 차분히 기다리는데! 못난 것들!"

그러자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노대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의 생사는 하늘에 달린 법. 성가는 조상님이 보우하시고, 천지신명의 가호가 있으니 모두 무사히 돌아 올 것이다!"

노대부인의 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긴장감이 지나쳐서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였을까. 사람들이 모두 안정을 되찾았다. 왕씨는 눈물을 닦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시작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초조해하는 하인들을 엄하게 다스리며 문을 살피게 했다.

그날 밤, 어딘지 모를 지방의 군대가 경성으로 들어와 성내의 수비군과 격렬한 시가전을 벌였다. 성부는 노른 자위 땅에 있지 않았기에 다행이었다. 황궁 왕부 근처에서 교전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불빛이 넘실대고, 길에는 핏물이 가득했다. 수많은 백성들이 무자비한 칼날에 쓰러졌다.

여인들은 집안에 숨어 불안에 떨었다. 그렇게 전투가 몇 날 며칠 이어지고 여섯째 날 아침, 전투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하늘에서 내린 가는 비 덕분에 연일 후텁지근했던 날씨가 수그러들었다. 시원한 바람이 집안으로 불어와 숨통을 틔워 주었다. 그리고 가는 비를 맞으며 성굉과 장백이 집으로 돌아왔다.

부자 둘은 행색이 엉망이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가가 휑한 것이 구치소에서 골든 위크를 보낸 것 같았다. 뺨은 깊게 됐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일주일 내내 공포 영화라도 본 듯한 얼굴이었다.

왕씨는 울고 웃으며 그들에게 달려갔다. 임이랑도 달려가려 했으나 유곤댁이 교묘하게 그녀를 잡았다. 해씨도 예절을 차리지 않고, 장백의 팔을 붙잡은 채 절대 놓지 않았다. 묵란, 여란, 명란 세 자매도 눈물범벅을 한 얼굴로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은 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마구잡이로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아무도 제대로 답을 듣지 못했다. 그때 노대부인이 두 부자에게 깨끗이 씻고 오라고 말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치 한 세기를 보낸 것 같았다. 깨끗이 씻고 돌아온 성굉은 노대부인의 무릎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장백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와 아내를 한참동안 다독였다. 노대부인은 계집종과 어멈들을 물린 뒤 성굉 부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엿새 전, 노황제는 평소대로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오지 않았고, 각 부의 주재들이 내각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무 문제도 없던 상황이 급변하더니 제일 먼저 금위군 지휘사 서신이 서화문 밖에서 매복하고 있던 자에게 살해당하였다. 그러자 부지휘사 영현이 경성 근방의 군대를 지휘해 황성 계엄을 선포하고, 사왕야가 명을 받고 궁으로 들어가 황제를 호위했다.

성굉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왕야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다.

오성병마사 부지휘관 오용은 두 지휘사를 연금하고, 병사들을 동원하여 내각 육부 도찰원 등 중요한 부를 통제해 관원들을 모두 구금시켰다. 그리고 금위군들이 황궁과 삼왕야부를 겹겹이 에워쌌다. 사왕야는 조서를 날조해 삼왕야에게 독주를 내려 자진케 한 다음 무력으로 황제를 겁박해 자신을 황태자로 삼게 했다.

명란은 소름이 돋았다. 이건 또 다른 현무문의 변이 아닌가!!

그러나 사왕야는 이세민이 아니었다. 노황제 역시 이연이 아니었기에 자신을 위해 퇴로를 만들어 놓았다. 성굉 부자는 노황제가 일을 행하는 방식을 몰랐다. 다만, 며칠 후에 경성 근교에 주둔해 있던 삼대영이 반격을 해왔고, 오성병마사에 속해 있던 부지휘사 몇몇이 기회를 엿봐 도주한 후 두 지휘사를 구해냈다. 그 후, 오용을 살해하고 다시 병력을 장악하였다. 그 후 안팎이 합세해 삼대영이 성으로 들어와 함께 황성을 반격했다.

그러자 모든 형세가 뒤바뀌었다. 양쪽이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사왕야가 패해 포로가 되었다. 그 외의 반역 공모자들은 사형당하거나, 도망가거나,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이레 동안 지속됐던 '신진의 난'이 끝이 났다.

성굉은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상서 대인이 기민해 이상한 낌새를 느끼자마자 우리를 이끌고 공부의 암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식량과 물이 있어 며칠은 숨어 지낼 수 있었고,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의 동료들은..... 몇몇은 구금을 당할 때 굴복하지 않아 병사들에게 해를 당했고, 또 몇몇은 어젯밤 난리 속에서 상처를 입거나 죽었습니다."

줄곧 입을 다물고 있던 장백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 영업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까지

한국산 초경량 안경테

(저렴한 가격, 다양한 디자인, 단시간 안경제작)

Óptica Exprés 2258-9667 5575-1090

Blvrd Los Próceres 16 avenida esquina 17-62 Zona 10

Boulevard Principal San Cristobal, Plaza express, Local #3 Zona 8 de Mixco



가까이 보면 볼수록

가까이서 보면
기린은 생각보다 너무 높고,
코끼리는 누가 봐도 너무 크다. 하지만
사람은 알면 알수록, 다가가면 갈수록 오히려
작아진다. 숨을 쉬듯 거짓말을 하고 눈을 깜박이듯
변명을 하고 허리에 총을 찬 독재자처럼 이기적이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기린처럼 코끼리처럼
가까이 보면 볼수록 높고 큰 사람이 되면 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이 높고
커야 한다.

- 다인의《사는 게 쉽다면 아무도 꿈꾸지 않았을 거야》중에서 -

* 가까이 볼수록
더없이 작아지는 사람이 있고
기린보다 코끼리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크고 그가 꾸는 꿈이 아름답고 원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몸이
아닙니다. 이타적 마음의 크기, 미래 지향적
꿈의 크기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그 크기가 드러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2021년 11월 24일 [10.20] 수요일

오늘의 운세



작은 정성이 먼 훗날까지 영향을 미친다. 꼼꼼한 처리가 상책. 72년생 집안에서 정을 베풀면 만사가 순조롭다. 위장 장애에 주의. 60년생 잘 챙겨보지 않으면 계약에서 손해가 크다. 처음부터 살피도록. 친구 덕분에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여행지에서 인연을 만남.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의인이 도와준다. 73년생 동료나 애인이 마음을 털어놓으면 받아 줘야 일이 해결된다. 61년생 부부 사이에서 무조건 양보해야 일이 커지지 않는다. 금전운 상승.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을 널리 선전해야 도와주는 인연을 만난다.



집안의 우울한 일을 뒤로 하고 새 출발하라. 도움의 손길 있다. 74년생 지금의 배우자 또는 연인 외에 한눈 팔지 말 것. 62년생 하던 일을 정리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건강도 신경 써야 한다. 50년생 거느리는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권위를 내세우면 손해.



여린 마음때문에 손해볼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75년생 의기 충천하여 자신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때이니 자제하라. 63년생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기 쉬운 날, 각별히 주의. 51년생 한번쯤은 부드러운 눈으로 자신의 뒤를 돌아 보아야 할 때.



상하가 기쁜 마음으로 협조하니 세상이 편안하다. 76년생 부모에게 나는 아직 아이이니 한번쯤 애교도 부려 보아라. 64년생 스스로 상사의 부름에 응하여 나아가니 일이 술술 풀린다. 52년생 아이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할 일이 생긴다.



만루 홈런을 치려다 스트라이크 아웃되는 격이니 욕심부리지 말라. 싱글의 경우 처음 제안한 사람을 사절하고 두번째 사람과 이루어져 행운이 온다. 65년생 종교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 53년생 조상의 묘지를 돌보아야 할 일이 생기니 경건하게 있어라.



자녀 교육비 마련으로 마음고생. 운전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금. 78년생 일 자리를 구하나 실패. 부모님께 의존. 66년생 교통 법규 위반으로 딱지. 깔끔한 매너로 경찰 상대해야 결말이 좋다. 54년생 정보화 시대에 나 혼자 낙오된 느낌. 늦지 않았다. 필요한 것을 배워라.



긴 터널을 막 빠져 나온 기분.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79년생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 이제는 하나씩 풀릴 수 있다. 67년생 결혼한 사람은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있는 사람은 잔치 준비. 55년생 복지부동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다.



하는 일이 잘 안된다고 너무 매달리지 마라. 건강에 빨간 불. 80년생 친구에게 밥사주고 왕따 당할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 68년생 공중 도덕을 지키려고 줄 서 있는데 나 혼자만 바보된 느낌. 56년생 하고있는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 머리가 아프다.



여행지에서 식중독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81년생 친구와 즐거운 여행을 간다. 음식물 섭취시 주의하라. 69년생 영업자는 영업실적이 침체. 뭔가 활력소가 필요하다. 57년생 불화에 시달리던 가정에 화목이 깃들고 사업도 잘 된다. 새로운 동업자가 생긴다.



회사일도 동료간에 화합하여야 성과가 좋으니 서로 다투지 마라. 학생은 미팅에 나가면 폭탄 제거반 되니 공부나 열심하라. 70년생 주식, 증권, 투자 삼가라. 뜻하지 않은 악재로 큰 손해본다. 58년생 근육이나 관절을 조심하라. 병원에 입원한다. 회사에서 다툴 위험 있다.



사업도 침체되어 건강도 악화되니 매사 조심하고 건강 주의하라. 71년생 동업자중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 59년생 새로운 계약이 중도에 난관을 만나 지체된다. 47년생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워지고 혈압이나 심장에 이상이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라.

스페인어 한 마디

desfile, marcha **행진 * 퍼레이드**

Vamos a ver el desfile inaugural de los Juegos Olímpicos.

우리는 올림픽 개막 행진을 볼 것이다.

disputar, luchar, competir **치열하게 다투다 * 언쟁하다**

Está siendo un partido muy disputado.

치고 박는 매우 치열한 경기가 되고 있다.

유 머

편지지

한 친구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자 꼬시는 방법에 대해 애기를 했다.

"너, 참대단해! 여자 꼬실때 편지를 쓴다며,,,,"

"응, 그럼 모두들 그걸 받아 보고는 눈물을 글썽이곤 하지...."

"어떻게 써야 되는거야, 어떤 내용으로....."

"별거아냐. 그냥 오늘밤 대이트 하자고....."

"그런데 여자가 감동을 한다구?"

"쓰는 편지지가 좀 특이해."

"어떻게?"

"응, 100만원짜리 수표 뒤에다 쓰거든....."

과실치사

오후 한때를 비서와 함께 즐기려는 정치인이 호텔에 들어갔다.

방안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어디엔가 도청장치기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예감에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바닥의 양탄자를 걷어올리던 그는 마침네 둥근 금속판을 발견, 도청마이크라고 생각하고 그걸 뽑아내서 창 밖으로 집어던졌다.

안심하고 한참동안을 비서와 즐기던 그는 노크소리에 투덜거리며 문을 열었다.

문밖에는 경관과 호텔 종업원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랫방 샹드리에가 천정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남녀 한 쌍이 죽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야겠습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과테말라 한인 교회 연합

다메섹선교교회



담임목사 김기택

ZOOM을 통한 LIVE영상예배.
금요성경공부 : 오후 8시
주일 낮 예배 : 오전 10시40분
ZOOM회의(예배) 번호
⇒ 911 918 9999
비밀번호 : 046322
21 Calle 13-15 Z.11 Col.Mariscal
전화: 2473-3968, 5511-6525

평강교회

주일예배 : 1부 오전 8 시
2부 오전 11시
어린이 예배 : 오전 11시
수요예배 : 오후 8시
금요기찬예배 : 오후 8시 (매월 1,3주)
토요새벽기도회 : 오전 5시30분
*** 모든 예배를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
주소 : 11Ave. 29-46 Z.12 El Bosque
전화 : 2476-5772, 4677-4399 담임목사 : 최 유 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과테말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정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 17Ave 28-92 Zona 12
교회 : 2293-2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과테말라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상돈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37ave. 3-36 Z.7 Col.el rodeo
교회: 2433-4533/담임목사:4768-5454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병성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 0 Ave. 9-41 Z.9
전화 : 2362-8565, 5176-3677

재미한인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 하비스트교회

주일예배 (대면, 오전 11시)
주일학교 (대면, 오후 1시)
수요신앙강좌 (온라인, 수요일 8시)
새벽기도 (온라인, 새벽5시30분)

주소 : 4 Ave. 'A' 14-76 Zona 14
전화 : 2292-3662, 4067-1051

담임목사 서동오

대한예수교장로회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박필종

BIBLE TIME과 함께
성경 읽고, 말씀 묵상

주일예배 : 주일오전 10시30분(방송예배)
새벽예배 : 월-토 6:00(방송예배)
주소 : 18Calle 5-92 Col.MARISCAL Z.11
교회 : 2474-4551 / 목사 : 5705-6646

예배 안내(유투브에서 검색하세요.)

주일예배 : 방송시간 오전 10:30
희망찬 새벽예배(월-토) : 방송시간 6:00

과테말라
선한목자교회

더욱 힘써 예배 합시다!!

회식



오늘은 회식을 했다.

(직원들끼리만)



원래 알수가 없는 편인데다

술도 안좋아하는 편이고 회사사람들과

회식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보통..



입을 모아 상사욕..



불편한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조용히 술 조금 안주 많이.



그냥 들러리 같은 회식 자리..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명성왕후 시해’ 편지



“역사상 고금 미증유의 흉악한 사건….” 1895년(을미년) 10월 8일 자행된 명성왕후 시해 사건 당시 일본 영사관의 한 젊은 외교관이 본국 외무성에 보고한 내용이다. 어쩌면 이 젊은 외교관은 시해 음모를 제대로 몰랐거나 좀 양심적이었을 순 있겠다. 시해 사건에 실제 가담했던 다른 외교관이 “우리들이 왕비를 죽였다”며 당시 정황을 밝힌 편지가 최근 발견된 것이다.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九萬一)라는 이 외교관은 사건 다음 날 고향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입은 내가 맡은 임무였다. 담을 넘어 (중략) 간신히 오쿠고텐(奥御殿·궁궐 안쪽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왕비를 시해했다”고 썼다. 또 “생각보다 간단해 오히려 매우 놀랐다”는 심경도 밝혔다고 한다. 오쿠고텐은 경복궁 후원 건청궁의 왕비 침전인 곤녕합(坤寧閤)을 말한다.

▷명성왕후 시해범은 민간인 신분의 ‘일본 낭인(浪人)’이란 것이 통설로 굳어져 왔다. 낭인의 본래 뜻은 ‘불법적으로 다른 곳을 유랑하는 부랑인’이지만,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군인이나 관료가 아니라 재야에서 ‘지사(志士)’인 체하며 정치 활동을 하는 패거리들이 스스로를 낭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들은 “민비를 죽이자”는 여론을 형성했고, 육군 중장 출신의 미우라 고로 공사도 부임하자마자 “‘여우사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실행에 나선 것이다.

▷명성왕후 실제 시해범은 ‘일본 낭인’이 아니라 ‘일본군 소위’임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도 발굴됐다. 일본은 사건 직후 “우리 수비대의 어느 육군 소위”라고 보고했다. “왕비는 먼저 우리 육군사관의 칼에 맞고, 그 다음에 나카무라(낭인)도 하수(손을 대어 사람을 죽임)했는데…”라는 보고도 있다. 그러다 “어느 일본인이 살해”라고 시해범을 흐리기 시작했다. 시해범은 경성수비대 미야모토 다케타로 소위라고 한다.(이종각 저 ‘미야모토 소위, 명성왕후를 찌르다’)

▷명성왕후 시신은 ‘홑이불로 싸서 송판 위에 올려’ 녹원으로 옮겨져 다른 궁녀들과 함께 불태워졌다. 치명상은 이마 위에 교차된 두 개의 칼날인 것 같다는 증언이 있다. 일본의 한 신사엔 한 낭인이 살해도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히젠도’가 보관돼 있는데, 칼집에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는 뜻의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라고 새겨져 있다. 낭인들은 서로 자신이 명성왕후를 베었다며 ‘공(功)’을 내세우려 혈안이었다. 군인이든 외교관이든 낭인이든 무죄 혹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다 풀려났다. 이번 편지 발견을 계기로 126년 전 참혹했던 시해 사건의 전말, 특히 일본 정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소상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2021년 11월 24일 [10.20] 수요일

스 도 쿠

난 이 도 : 쉬운 단계

		7	1	3				8
		6		8				3
1	3		5				6	7
	5	9	7				4	
	1		8		5		3	
	8			2		5	9	
2	9				8		1	5
8				5		3		
3				6	1	2		

난 이 도 : 어려운 단계

		2			7		5	
6				9				4
5			6	1				9
1				8		3		
		9			2			5
3				5	6			1
7				4				6
	5		9			4		

오늘의 스도쿠 정 답

쉬운단계정답

9	8	2	1	6	4	5	7	3
4	7	3	9	5	2	1	6	8
5	1	6	8	7	3	4	9	2
1	9	5	4	2	6	3	8	7
6	3	7	5	8	9	2	1	4
2	4	8	3	1	7	9	5	6
7	6	9	2	4	5	8	3	1
3	2	1	7	9	8	6	4	5
8	5	4	6	3	1	7	2	9

어려운단계정답

3	7	4	1	2	9	6	5	8
9	6	5	3	4	8	1	2	7
1	8	2	6	5	7	4	9	3
5	6	8	2	7	1	9	3	4
7	1	6	4	9	3	5	8	2
2	4	3	9	8	5	7	6	1
6	2	7	8	1	6	3	4	5
4	3	1	5	6	2	8	7	9
8	5	9	7	3	4	2	1	6

HANA TOUR

☆ 세계 전 지역 항공권 – 멕시코 직항 / 한국 출발 / 과테 출발 / 전세계 출발
☆ 세계 전 지역 패키지 여행 / 단체 패키지 여행
(쿠바 / 코스타리카 / 브라질 / 페루 / 유럽 / 칸쿤
☆ 크루즈 여행

이희경(Edita Lee)
502) 3042 6968 / 카카오톡 ID : editaguate
email : hanatourguate@gmail.com
5 Av. 16-35 # 703 Plaza Pacifico Sur, Zona 14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여행~~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11월 11일 한국 냉장 컨테이너

보 물 창 고

신고배 6과. 7과. 8과





단호박. 생우엉. 팽이버섯. 쌈무. 쥐포. 쫀디기. 노가리
장어탕. 돼지국밥곰탕. 검은깨 검은콩죽. 도라지은행마죽. 슈퍼푸드건강죽
베지밀A. 검은콩두유. 바나나우유. 엔요

10월25일 한국냉동 컨테이너 입하

비엔나소세지, 훨터치소세지, 고메중화짬뽕, 고메 핫도그
꼬마돈까스, 고메탕수육, 임꺽정떡갈비, 수제흰살생선까스
메밀 김치전병만두, 냉동유부, 냉면, 쫄면
단팥크림빵, 보름달, 미니치즈케익, 미니쌀국수컵
반건조오징어, 마른새우, 낙지, 쭈꾸미, 꼬마돈까스
김치만두, 찰보리감자만두, 고기손만두, 김치손만두

배달 직통 번호 5318-0169 카톡 주문 가능

배달 직통 전화번호 : 2473-8255, 2473-8222, 5318-0169
Anillo Periferico 22-29 Z.11 C.C San Jorge Local 14
(컴퓨터 판매 및 수리. 한글자판 및 스티커)

MEGA MART

로데오

한국택배전문 2433
통합배달전문 9015



11월 18일 한국 냉동 신상 대량입하

11월 21일 한국 일반 신상 대량입하

신상품 대량입하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신상품도 같이 세일합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
21프로

잡화
31프로
대 세일중

로데오
전지점

세일



기간: 12월 31일까지

로테오 한국택배 마감 안내

12월1일부터 실는 택배는 가격 인상 있습니다

12월 06일 일반 1대 + 12월 20일 냉동 1대

믿고 맡겨주세요 택배는 로테오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배화 컨테이너가
모자라는 물류난을 겪고있지만
로테오택배는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소중한 택배들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로데오마켓
본점 2433-9015
2호점 2221-5364
3호점 2367-0137

업택업제

아람정육점	4514-0802
마장동	3258-8320
밀베이커리	4545-4504
순풍식당	2508-5635
항이	4576-5786
진미식당	5550-1317
김사랑	5379-5833
본가	4676-7100

통합 배달 전문



한국 택배 전문